ISSN 3058-2644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제 2 권 제 1 호 | 2025년 6월 |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Language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학술지, 연 2회 간행)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언어융합연구소
전화: 062-230-6568 이메일: lcri@chosun.ac.kr
홈페이지 https://www.chosun.ac.kr/user/indexMain.do?siteId=lcri-cu

편집위원회 연락처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언어융합연구소
전화: 062-230-6568 이메일: lcri@chosun.ac.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최영주(조선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순복(부산대학교)
장세윤(한국해양대학교)
조진우(전북대학교)
조참훈(중국서남대학교)
황보현진(부경대학교)
Sherman Wilcox(New Mexico University)
Wendy Sandler(Haifa University)
Mario Brdar(Josip JurajStrossmayer University of Osijek)
Rita Brdar-Szabó(Eötvös Loránd University)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 2권 1호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최영주
발행처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인 쇄 조선대학교 E-Learning지원팀
ISSN 3058-2644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 Volume 2, Number 1, June 2025 ISSN 3058-2644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Language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 Volume 2, Number 1, June 2025 ISSN 3058-2644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목 차

오수빈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여행 은유와 시대적 함의 ····· 1

이선혜 수어에서의 문법화 연구 동향 분석: 계량서지학적 접근 ····· 17

이효진 **원미진** 농학생 대상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 교육 연구: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을 기반으로 ····· 41

Lee, Sumi Loanword Processing in Korean English Bilinguals ····· 57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Language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2. No. 1 (2025) pp.001~016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여행 은유와 시대적 함의

오 수 빈
(University of Arizona)

Oh, Subin. 2025. The Metaphor of Journey in the Inaugural Addresses of South Korean Presidents and Its Historical Implications.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2*(1), 1-16.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metaphor "Politics is a journey" in the inaugural addresses of South Korean presidents from Kim Young-sam (1993) to Lee Jae-myung (2025). Using a cognitive linguistics framework, the study analyzes how this metaphor is utilized to shape political discourse within the specific context of presidential inaugurations, which are symbolic and performative texts that outline national visions and policy directions. The metaphor of "politics as a journey" is explored through its key elements— 'traveler' (the political subjects: the president, the nation, and the people), 'destination' (political goals), 'path' (policies and strategies), 'obstacles' (issues and crises), and 'movement' (progress and reform).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metaphor remains consistent, it is dynamically recontextualized to reflect the unique political and social challenges of each era. This study demonstrates how metaphors effectively frame complex political agendas and national goals, offering both persuasive and strategic tools in political communication.

Key Words: Conceptual Metaphor, Political Discourse, Cognitive Linguistics, Presidential Inaugurations, Political Communication

1. 들어가기

정치는 공익을 증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 영역으로,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을 넘어 권력을 구성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정치인들은 연설을 통해 정책을 표명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며, 은유(metaphor)는 복잡한 정치 이슈를 구체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전략으로 사용된다(Charteris-Black, 2011; Lakoff & Johnson, 1980; Mio et al., 2005). 특히 대통령 취임사는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담화로, 이때 선택된 은유는 정권의 가치와 전략을 나타낸다. 특히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정치적 목표를 '목적지'로, 국가·국민을 '여행자'로, 정책을 '길' 혹은 '장애물'로 상정하며, '함께 전진하는 국가'라는 메시지를 역동적으로 전달한다(권연진, 2018).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국내외에서 중요한 정치 담화 분석 주제로 다뤄졌으나, 국내의 특정 정치 담화에서 이 은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김영삼(1993)부터 이재명(2025)까지 8명의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하여,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의 발현 양상과 시대별 변화를 고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임사에서 은유가 사용되는 방식과 그 정치적 효과를 밝히고, 둘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은유의 변주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서 정치 담화의 이해와 분석에 기여한다.

분석 대상은 8명의 대통령 취임사 전문이며, 이를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은유가 한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정치적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식을 밝혀,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시대적 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

인지언어학의 발달로 은유에 대한 관점은 수사학적 기교에서 인지적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었다. Lakoff and Johnson(1980)은 "은유의 본질은 한 가지 사물을 다른 사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은유를 단순한 언어적

장식이 아니라 인간 사고의 보편적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즉 하나의 목표 영역(target domain)을 보다 구체적인 근원 영역(source domain)을 통해 개념화하는 것이 은유의 핵심이며, 이때 두 개념 영역 사이에는 체계적인 사상 관계(mapping)가 성립한다. 예컨대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에서, 논쟁 참여자는 전쟁의 적에, 상대방 논리를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는 행위에 각각 대응된다. 이렇듯 은유적 표현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영역 간의 대응을 이해한다는 뜻과 같다.

인지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은유가 일상 언어 전반에 퍼져 있다고 보고, Lakoff and Johnson(1980)이 제시한 구조적 은유, 방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등을 토대로 은유가 어떻게 인간의 인지와 경험에 작용하는지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결론적으로, 개념적 은유 이론이란 추상적 개념(목표 영역)을 구체적 개념(근원 영역)을 통해 이해・경험하는 인지 과정을 말하며, 두 영역 간의 체계적 대응이 전제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정치 담화와 같은 설득적・공적 담화에서 은유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근간을 제공한다.

2.2. 정치 담화에서의 은유

정치 담화에서 은유는 추상적 이슈를 쉽게 이해하게 돕고, 정치적 목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작용한다(Charteris-Black, 2004; Lakoff, 2004). 특히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국가가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관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설정함으로써 희망적 메시지를 강화한다(Lakoff & Johnson, 1980; Dávid & Furkó, 2016). Mio et al.(2005)은 은유가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의 연설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사는 정치적 목표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담화로, 은유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Campbell & Jamieson, 1985). Svetonosova (2022)는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빈번하게 사용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목표 지점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권연진(2018)에서도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행’ 은유는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묘사하며,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치 담화에서 은유의 사용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송경숙(2000)은 한・미 TV 토론에서 은유와 환유를 분석하며, 전쟁 은유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김길동(2008)은 정당 대변인 논평에서 다양한 은

유를 분류하고, 전쟁 은유의 빈도를 높게 보고했다.

3.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3.1. 분석 대상: 대통령 취임사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8편을 수집하여 소규모 전용 코퍼스를 구축하였다(총 9,974 tokens, 5,120 types, 연설당 평균 1,247 tokens). 텍스트를 추출한 뒤 모든 구두점을 제거하고, 한글·영문·숫자로 이루어진 연속 문자열을 단어 단위로 토큰화하였다. 텍스트 전처리와 통계 계산은 파이썬 스크립트로 자동화하였다.

자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박근혜, 윤석열), 주요 일간지(문재인—서울신문, 이재명—조선일보)에서 수집하였다. 수집한 원문은 언론사 전문 및 당시 영상 기록과 대조하여 정확성을 검증한 뒤, 공식 연설문을 기준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 취임사는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기에 발표된 연설로서, 각 대통령의 정치적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취임사 8편의 전체 898문장 가운데 개념적 은유가 포함된 문장은 414개(46%)였으며, 은유 총발현 수는 528회였다. 은유 유형별 문장 수는 여행 134문장(1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 95문장(11%), 전쟁 59문장(7%), 생명체·기계 52문장(6%), 질병 45문장(5 %), 빛 23문장(3 %), 가족 19문장(2%), 물·흐름 11문장(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여행’ 은유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질적 담화분석을 통해, 김영삼에서 윤석열까지의 취임사를 시간 순으로 검토하고, 각 정권별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의 사용 양상과 변주를 분석한다. 정치 담화에서 은유를 연구하기 위해 인지언어학적 관점과 텍스트 분석 기법을 결합하여 진행한다.

1. **텍스트 수집 및 전처리:** 각 대통령 취임사의 텍스트를 수집하고, 정확도를 교차 검증한 다음 소규모 코퍼스를 구축하였으며, ‘3.1. 분석 대상’에

서 서술한 기초적인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앞두고 데이터에 익숙해지기 위해 주요 주제를 파악하여 문단별로 요약하고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2. **은유 표현 예비 코딩:** 각 취임사에서 문장 수의 20%를 무작위로 추출(총 180문장)하고, Pragglejaz Group(2007)와 Steen et al.(2010)의 MIPVU 절차를 한국어 담화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즉 (1) 표층 의미와 문맥 의미를 구분하고, (2) 두 의미 간 불일치를 확인하여 (3) 불일치가 있을 때 은유로 판정하였다. 예비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건축・전쟁・생명체・질병・빛・가족・흐름 등 8개 범주를 정의하고 예시・경계 사례를 포함한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3. **근원 영역별 분류 및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 하위 유형 도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은 참고 용도로만 기록하고, 관련 표현은 '여행자'・'목적지'・'길'・'장애물'・'이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사상 관계를 파악하였다.
4. **본 코딩:** 전체 코퍼스에 대해 코드북을 적용해 일괄 태깅하였다. 은유 후보 표현은 (i) 예비 코딩에서 확인된 핵심 어휘 412개 사전을 바탕으로 Python regex 스크립트로 1차 추출하고, (ii) 연구자가 문맥을 확인하며 최종 범주 태그를 부여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애매한 사례는 메모로 기록해 기준을 수정・반영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은유 예시는 대표적이고 맥락이 분명한 문장을 발췌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며, 각 예시에서 대통령명과 연도도 함께 표기하였다(예. '김영삼(1993)').

4. 분석 결과

4.1.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 하위 요소별 사례

4.1.1. '여행자'(정치 주체)로서의 국가・국민・대통령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요소는 정치 주체로서의 '여행자'이다. 각 대통령은 국가, 국민, 그리고 본인을 여정의 주체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김영삼(1993) 취임사에서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함께 달려갑시다”라는 구절에서 국가와 국민을 함께 여정에 나서는 주체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대중(1998)은 외환위기라는 장애물 극복을 위한 여정에서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선두자’로 설정하고 국민은 그 뒤를 따르는 ‘동반자’로 그렸다.

노무현(2003)과 이명박(2008)의 취임사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난다. 노무현은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라며 국민과 대통령이 수평적인 관계로 묘사되었고, 이명박은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라며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박근혜(2013)는 ‘국민행복’을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정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을 함께 가는 동행자로 규정한다. 문재인(2017)은 정치적 분열 상황 속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라며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고 있다. 윤석열(2022)은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표현으로 ‘여행자 집단’으로서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재명(2025)은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라며 스스로를 여행자로 설정하면서도, 이어진 문장에서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라며 목적지를 향한 길에 청자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분석 결과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행자’로서의 정치 주체가 대통령과 국민을 포함하며, 시기마다 구체적인 표현이나 강조점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주화 이후 시기에는 대통령이 ‘선두자’로서 우위에 서기보다는 ‘동반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1.2. ‘목적지’(정치적 목표)의 설정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목적지’, 즉 ‘어디로, 무엇을 위해 이동하는가’이다. 대통령 취임사는 그 정권의 국가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므로, 목적지 은유가 종종 나타난다. 이 목적지 은유는 국가적 과제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취임사의 핵심적인 미래지향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2013)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인과 국민이 함께 갈 여정의 목적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재명(2025)도 “진정한 민주공화

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향하는 여정의 목적지를 설정한다.

목적지 은유는 각 대통령의 취임사가 제시하는 국가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정권마다 구체적인 정책 키워드와 목표가 다르지만, 취임사의 구조상 거의 필수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목표 제시가 반드시 여행 은유를 통해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 목적지 은유는 국가의 발전 과정이 미완성 상태임을 함축하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덧씌워 국민을 설득하는 중요한 설득적 기능을 한다.

4.1.3. ‘길/방향’(정책・전략)과 ‘장애물’(위기・문제)의 비유

여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할 것인가”와 그 길 위에 존재하는 “장애물”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책과 전략은 ‘길’ 혹은 ‘방향’으로 은유되며, 국가가 직면한 난제나 장애물은 “걸림돌”, “장벽”, “적” 등으로 지칭된다.

예를 들어, 김영삼(1993)은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입니다.”, 김대중(1998)은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노무현(2003)은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라는 발언함으로써 국가 정책 방향을 ‘갈림길’ 위에서 ‘전진’과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서사화한다.

이명박(2008)도 “다음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이라며 갈림길 은유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선택해야할 것을 변화’로 보고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입니다”라며 새 정부가 만들 정책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2017)도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데에 ‘길’ 은유를 사용했다.

이재명(2025)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라며 갈림길 은유를 사용했는데,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라며 위기의 극복을 위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라며 국민의 뜻이라는 방향을 갈림길에 놓인 상황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이,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길’과 국가가 직면한 위

기나 장애물은 각 정권의 당면 과제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묘사된다. 장애물은 국가 발전을 위한 장애로 설정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4.1.4. '이동'(발전・도약)과 '속도'(전진・재도약) 은유

취임사에서 또 다른 핵심은 국가와 국민이 실제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약", "전진", "달려간다", "함께 나아가자"와 같은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며, 이는 여정 은유에서 '이동'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대통령들은 국가 발전과 개혁, 변화를 이동 은유로 묘사하여 국가 전체가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임을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김영삼(1993)은 "우리는 일찍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이루어 낸 민족입니다. 우리 다시 세계를 향해 힘차게 웅비해 나갑시다"라고 말하며, 과거의 도약 과정을 '이미 경험한' 사례로 환기시키고, 그때처럼 또 한 번 기운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김대중(1998)은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에의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됩시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위기 상태에서 '미래'로 뛰어오르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노무현(2003)은 "도약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을 통해,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긴장감을 조성하며, 국가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이동으로 표현한다. 이명박(2008)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새로운 신화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가자"는 표현을 통해, 과거 경제 발전의 성공을 '이미 성취한 전진'으로 호출하는 한편, "세계는 우리를 저만치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도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라며 경쟁에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근혜(2013)는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민감한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국가의 진전에 동력을 제공할 주체가 국민임을 강조한다.

문재인(2017)은 탄핵 사태 이후 과거를 "뒤로 하고" "함께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정의 이동을 통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윤석열(2022)은 국내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한

자유의 확대가 “도약과 빠른 성장”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2025)은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대신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역동적 이동으로 재구성한다. 여기서 ‘끌려간다’와 ‘앞서간다’의 대비는 속도·방향의 주도권을 둘러싼 은유적 대립을 형성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만이 ‘무한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서사를 구축한다.

이러한 ‘이동’ 은유를 통해 취임사는 단순히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넘어서, 국가 발전과 변화가 동적인 움직임임을 재현한다. 이동이 멈추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암묵적으로 설득력을 얻으며, 국민에게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는다.

4.2. 정권별·시대별 변주 양상

대통령 취임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치는 여행이다’라는 개념 은유는 모든 정권에서 공통되게 나타나지만, 각 대통령은 이를 자기 시대의 맥락과 필요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했다. 즉, 같은 은유라도 어떤 정치적 기능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 정당화’, ‘미래 비전 제시’, ‘통합적 리더십 형성’ 등으로 다르게 전략화되었다.

4.2.1. 김영삼(1993): “신한국”을 향한 전 국민 질주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독재 종식 후 첫 문민 정부를 출범시키며 ‘신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목적지로 제시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회생 등 내부의 “한국병”을 극복하고 세계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국가적 도약을 강조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달려야만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 낙오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목표 지점인 신한국에 이르는 여정에서 어떠한 고통도 함께 분담하자는 결의와 함께, 모두가 단결된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출발할 것을 선언했다.

4.2.2. 김대중(1998): IMF 국난 속 ‘재도약’의 행로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라는 국난 속에 취임하여 국가 경제의 “재도약”

을 목적지로 삼았다. 그는 IMF 위기 극복이라는 구체적 장애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금 모으기 운동과 노사정 대타협 등 국민적 역량을 모아 위기를 넘어서자는 서사를 펼쳤다. 취임사에서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개혁과 고통 분담을 통해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선두에 서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함으로써, 국민 통합이라는 여정 속에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4.2.3. 노무현(2003):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미래 도약

노무현 대통령은 새 천년의 개혁 과제를 안고 취임하여, 한국 사회가 과거로 후퇴하지 않고 미래로 도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도약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나라가 서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사적 전환점에서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낡은 지역주의 정치와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동북아 협력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통해 미래로 향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을 참여의 동반자로 여긴 그는 개혁과 통합을 “도약의 디딤돌”로 삼으며, 국민의 지혜와 결단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행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4.2.4. 이명박(2008): ‘선진일류국가’로의 가속 질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여정의 종착지로 삼고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 60년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여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미래로 가는 길”을 국민과 함께 찾아 열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전진”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이 한 팀으로 국가 발전의 새 장을 열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외의 변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음 60년의 국운”을 결정할 갈림길을 넘어 도약하자는 역동적 서사를 제시했다.

4.2.5. 박근혜(2013):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새 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과”희망의 새 시대 “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부흥과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을 국가 비

전으로 제시한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정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가는 동행자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남북 관계에서도 강한 안보를 토대로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고 독려했다.

4.2.6. 문재인(2017): 분열 뒤 ‘나라다운 나라’로의 재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취임사에서 선거 과정의 갈등을 화해시키며 “이번 선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과거의 경쟁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전진”할 것을 촉구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통령과 국민이 동반자로서 함께 국가를 재건하는 여정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사회적 적폐 청산과 분열 극복이라는 어려운 장애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와 공정을 회복하는 길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4.2.7. 윤석열(2022): ‘자유’의 나침반으로 복합위기 돌파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복합위기와 국내 양극화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하였으며, “자유”의 가치를 기치로 국가 재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그는 국내의 극심한 사회 갈등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루지 않고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 시대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협을 극복하는 여정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은 국민을 위대한 동행자로 호명하며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거센 풍랑을 뚫고 나아가는 항해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4.2.8. 이재명(2025): ‘진정한 대한민국’ 재건의 대장정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위기가 중첩된 혼돈기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국가 대개조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전환의 분기점"에 선 시대 상황을 진단하며, 국민 분열과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새 미래를 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국민을 여정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목표 지향점은 정의와 통합이 실현된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과거의 잘못된 질서와 결별하고 국민 통합을 동력 삼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

8개 취임사를 시대적 변주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모든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가 목표를 시각화하고 국민 동참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으나, 세부 변주 방식은 각 정권이 직면한 위기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졌다. 은유 자체는 고정된 표현이 아니며, 대통령 취임사 담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맥락화되고 재구성되는 유연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취임사라는 정치 수사 장르에서 각 대통령은 '여행'이라는 공통된 틀을 자기만의 언어로 업데이트하며, 위로는 국가 비전과 난관 극복의 서사를 제시하고 아래로는 국민을 하나로 동행시키는 리더십의 담론을 구축한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김영삼(1993)부터 이재명(2025)까지의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하여, 그 안에 나타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의 구현 및 변주 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이 은유가 대통령 취임사라는 특수한 담화 장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그 정치적, 수사적 의의를 논의한다. 특히 (1) 취임사의 장르적 특성과 여행 은유 간의 상호작용, (2) 이 은유 전략의 설득 효과와 잠재적 한계, (3) 정치 담화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우선, 대통령 취임사의 장르적 특성이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와 긴밀하게 결합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취임사는 국가 원수가 새 임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사로, 국민과 세계에 미래 비전과 정책 기조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적 텍스트이다. 이러한 의례적 성격은 필연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언어 전략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어 내며,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호소해야 한다. 이때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다소 추상적인 국가 비전과 과제를 '여정'이라는 시공간적 스키마

로 구체화한다. 대통령과 국민은 '여행자'라는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고, 장애물은 '극복해야 할 통과 의례', 국가 발전 목표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 재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정책적 수사는 이야기적·서사적 설득력을 갖추게 되고, 청중에게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된다.

이 은유 전략의 설득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위기나 과제(부정부패, 외환위기, 분열·갈등, 대외적 압력 등)를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장애물'로 형상화함으로써, 극복 의지를 높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심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기 IMF 외환위기를 "함께 건너야 할 힘든 길"로 표현하거나, 노무현 정부 시기 동북아 구도를 "새로운 전환점에서 갈림길"로 묘사한 사례들은 위기를 회피할 수 없는 난관이자 동시에 목표로 가는 발판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부여한다.

둘째, 낯선 미래 비전이나 개혁 과제를 '목적지'로 구체화하여, 국민에게 "그곳에 도달하면 더 나은 삶, 더 공정한 사회, 더 큰 번영이 보장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각 대통령이 선언한 신한국(김영삼), 재도약(김대중), 선진일류국가(이명박), 국민행복시대(박근혜), 나라다운 나라(문재인), 국제사회의 책임국가(윤석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재명) 등의 목표 지점 설정은 국민 동참을 유도하는 수사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대통령과 국민을 수평적인 동행자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리더십을 권위주의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길을 떠나는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담화에서 지향하는 '통합의 리더십'과 잘 맞아떨어지며, 국민 통합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 취임사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은유 전략이 현실 정치에서 갖는 한계를 간과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서사를 앞세워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정책적 설계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 힘을 합쳐 걸어가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도식이 반복될수록,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복잡성이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희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대외 무역질서의 변화, 국내 양극화 등의 중층적 요인이 "장애물"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을 '길잡이'로, 국민을 '동반자'나 '동행자'로 설정할 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 동원을 시도하거나 행정력을 사용해 갈등을 억누를 경우, 은유의 본래 의도였던 포용적 리더십이 오히려 권위주의적 통치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이처럼 여행 은유가 국민 동원을 정당화하거나 책임 소재를 분산하는 방식

으로 사용될 위험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대중, 언론, 정치 엘리트 집단이 은유를 어떻게 수용하고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더 깊이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단순한 언어적 장식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요구와 담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핵심 수사 전략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대통령 취임사라는 장르 분석에 국한되었지만, 그 도출된 함의는 정치 담화 연구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통령 담화는 고도로 의도된 정치적 발화로, 국가 비전과 지도자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텍스트이다. 따라서 취임사에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빈번히 사용되는 맥락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정치 수사학이 복합적인 갈등 환경 속에서 통합을 연출하고, 추상적 과제를 서사적으로 풀어내며 대중에게 설득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한정된 담화에만 집중된다는 한계점에서 착안해 이 은유가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떻게 재활용되거나 다른 은유와 결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추적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특정 지역의 언어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정치 담화 전략인지를 규명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한국 대통령 취임사라는 장르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설득적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적 도구로 작동했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정치 담화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권연진 (2018).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에 관한 연구. 「코기토」, 85권, 291~318.

김길동 (2008). 정치 담론에 나타난 은유 표현 분석: 정당 대변인 논평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5권 2호, 129~151.

김상진 (2018). 한미 정치담론에 나타난 '국가' 개념은유 대비 연구: Lakoff의 가족 모델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81권, 49~72.

배승호 (2001). 인쇄매체 정치담화에 나타난 은유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2권 2호, 131～150.
임동휘 (2017). <독립신문> 영문판에 나타난 '국가' 은유 연구. 「언어학」, 77권, 99～155.
조유진 (2019). 한국과 미국의 정치담론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Campbell, K. S., & Jamieson, K. H. (1985). *Deeds done in words: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genres of govern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rteris-Black, J. (2004). *Corpus approaches to critical metaphor analysis*. London: Palgrave Macmillan.
Charteris-Black, J. (2011). *Politicians and rhetoric: The persuasive power of metaphor* (2nd edi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Cox, J. L. (2012). Politics in motion: Barack Obama's use of movement metaphors. *American Communication Journal, 14*(2), 1-13.
Dávid, G., & Furkó, B. (2016). The journey metaphor in mediatized political discourse. *Acta Universitatis Sapientiae, Philologica, 7*(2), 7-20.
Lakoff, G. (2002).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o, J. S., Riggio, R. E., Levin, S., & Reese, R. (2005). Presidential leadership and charisma: The effects of metaphor. *The Leadership Quarterly, 16*(2), 287-294.
Pragglejaz Group. (2007). MIP: A method for identifying metaphorically used words in discourse. *Metaphor and Symbol, 22*(1), 1-39.
Santa Ana, O. (1999). "Like an animal I was treated": Anti-immigrant metaphor in US public discourse. *Discourse & Society, 10*(2), 191-224.
Song Kyong-Sook (2000). Metaphor and Metonymy in Korean and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Discourse and cognition 7*(1), 35-62.
Steen, G. J. (1999). From linguistic to conceptual metaphor in five steps. In Raymond W. Gibbs, Jr. & Gerard J. Steen (Eds.),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pp. 57-77).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Svetonosova, T. (2022). *Metaphors in America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Preprint]. SSRN. (2001–2021). Conference Presentation, *MGIMO-University,* Moscow: MGIMO Cultural Centre.

오수빈
85721 1103 E. 2nd St・Harvill, Room 241 Tucson, Arizona, U.S.A
Ph.D. Studen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eaching Program, University of Arizona
전 화: +01-520-500-6698
이메일: osubin@arizona.edu

논문접수: 2025년 5월 15일
수정완료: 2025년 6월 13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16일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2. No. 1 (2025) pp.017~039

수어에서의 문법화 연구 동향 분석: 계량서지학적 접근

이 선 혜
(국립부경대학교)

Lee, Seonhye. 2025. Research Trends in Grammaticalization in Sign Languages: A Bibliometric Approach.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2*(1), 17-39. This study employs a bibliometric approach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research trends and thematic developments in grammaticalization studies of sign languages over the past 40 years. As a visual-gestural language, sign language possesses unique features such as spatiality, iconicity, and non-manual elements, which may lead to grammaticalization patterns distinct from those in spoken languages.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grammaticalization in sign languages remains limited in both quantity and scope.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1,316 publications from 1984 to 2024, retrieved from the Web of Science and Scopus databases. The analysis focused on annual publication trends, frequently occurring keywords, thematic structures, and the evolution of research topics over time. The findings indicate a gradual increase in scholarly interest since the 2000s, with a notable expansion into interdisciplinary areas such as cognitive sci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cultural anthropology. Keywords such as “sign language,” “grammaticalization,” and “language change” emerged as central themes, reflecting the core focus of the field. By mapp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key topics, this study offers an integrative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grammaticalization research in sign languages and provides a solid empirica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planning and theoretical exploration.

Key Words: Grammaticalization, Bibliometric Analysis, Sign Languages, Thematic Mapping, Keyword Co-occurrence, Language Change

1. 서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체계이며, 이러한 변화는 언어의 유형이나 표현 양식과 관계없이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특히 언어 공동체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접촉(language contact)은 언어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언어 변화 현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이다.

문법화란 어휘 항목이 반복적인 사용과 특정한 맥락 속에서 점차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통시적 언어 변화 과정을 말하며, 이는 언어 구조의 재조직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Hopper & Traugott, 1993). 기존의 문법화 연구는 주로 인도유럽어를 포함한 소리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풍부한 역사언어학적 자료와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다양한 문법화 경로들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반면, 수어의 경우에는 시각-수동적(visual-gestural) 표현 양식이라는 고유한 특성, 공간성(spatiality), 도상성(iconicity), 그리고 비수지(non-manual) 요소들이 언어 구조 전반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어에서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단편적이며, 이론적 체계화가 부족한 실정이다(Zwitserlood, 2012; Pfau et al., 2018). 이는 수어가 기록된 역사와 연구 기반이 비교적 짧고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로 인해 수어의 문법화 양상에 대한 학문적 이해 역시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언어학 전반에서는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이라는 방법론이 주목받고 있다. 계량서지학은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생산량, 인용 빈도, 주요 연구자 및 기관, 키워드 네트워크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연구 지형의 구조적 특성과 발전 경로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Aria & Cuccurullo, 2017). 특히 연구 축적이 제한적인 분야일수록, 계량서지학은 해당 분야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수어에서의 문법화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어 문법화에 관한 기존 연구의 양적·질적 발전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및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수어 문법화 연구의 이론적 지형을 조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생산량, 주요 출판 기관

및 연구자의 기여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어 문법화 연구의 전반적 경향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 의해 직접 제시된 키워드인 저자 키워드(Author's Keywords; 이하 AK)[1]와 참고문헌 기반으로 도출된 키워드인 키워드 플러스(Keywords Plus; 이하 KP)[2]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어 문법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과 이론적 초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난 40여년간 수어 문법화 연구는 출간 현황과 주요 연구 주제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가?

둘째, AK와 KP를 비교 분석했을 때, 수어 문법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심이 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이며, 이들 주제는 어떤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위에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찾으려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어 문법화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관련 분야의 학문적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론을 보여준 후 4장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결과와 논의 사항을 언급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맺으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법화

'문법화'라는 용어는 Meillet(1915)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는 특정한 어휘 요소, 특히 접속사가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점차 그 의미적 기능이 약화되고, 음성 형식의 일부가 소실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법적 요소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Meillet은 이러한 변화가 언어 구조의 내적 동기에 따라 발생하는 언어적 진화의 핵심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

1) 저자 키워드 (Author's Keywords, AK): 논문 저자들이 직접 제공하는 키워드로, 연구의 특정 초점과 주요 개념을 반영함.

2) 키워드 플러스 (Keywords Plus, KP): WoS와 같은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용어로, 논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의 제목을 바탕으로 도출되며, 더 넓은 맥락을 제공함.

이후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언어와 이론 틀에서 확장되어 왔으며, Hopper와 Traugott(1993)은 문법화를 “어휘 항목이 점차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면서 형태와 의미에서 변화하는 통시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문법화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음운적 감소(phonological reduction), 의미 탈색(semantic bleaching), 형태의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어순 고정(fixation) 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유 형태의 어휘가 반복적 사용을 거치며 접어(clitic)나 접사(affix)로 변화하는 과정은 문법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설명된다.

Givón(2000)과 Heine & Kuteva(2007) 또한 문법화를 어휘 범주인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이 문법 범주인 부사, 조동사, 전치사 등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어휘소가 특정 담화 환경에서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맥락 확장(context expansion)과 기능적 재해석(functional reanalysis)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한다.

Kuteva et al.(2019)은 문법화를 “어휘적 요소가 언어 내부의 통시적 변화(diachronic change)를 통해 문법 표지(grammatical marker)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이 정의는 문법화를 단순한 형태 변화가 아닌, 의미와 통사적 기능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반영한다.

또한, Pfau와 Steinbach(2004)는 문법화 과정을 “자유 어휘가 점차 기능적 요소로 발전하고, 이후 다시 의존적인 문법형태(dependent grammatical form)로 변화하는 일련의 단계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명사나 동사가 대명사 또는 부사로 기능화되고, 나아가 이러한 기능어가 시제, 상(aspect), 또는 인칭일치 등의 접사 형태로 고정되는 경우는 문법화의 전형적인 경로로 간주된다.

이처럼 문법화는 단순히 어휘의 기능 변화에 그치지 않고, 언어 구조 전체의 변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통시 언어학과 유형론적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법화 연구는 대부분 소리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시각-수동적(visuo-manual) 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수어에 대한 문법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수어는 공간성(spatiality), 도상성(iconicity), 비수지(non-manual) 요소와 같은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문법화 과정에서도 소리언어와 다른 경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Pfau, Steinbach, & Wol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 문법화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대한 계량적·통시적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Sandler(2006)는 수어 연구가 소리언어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문적 관심

을 덜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수어의 독립적인 문법화 양상이나 유형론적 일반화를 밝힐 수 있는 많은 연구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수어에 대한 문법화 연구는 언어이론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검증하고, 언어유형론적 다양성(typological diversity)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2.2. 계량서지학적 분석(bibliometric analysis)

계량서지학이라는 용어는 Pritchard(1969)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연구의 영향력과 학문적 동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정량적 기법을 의미한다. 특히, 1950~60년대 Eugene Garfield의 과학 인용 색인(Science Citation Index) 개발은 학문적 네트워크를 탐구하고 연구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했다. 이후 1965년 Derek de Solla Price는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학술 네트워크와 지적 교류의 구조적 기초를 제공하며 현대 계량서지학의 토대를 확립했다(Al-Jamimi et al., 2022; Koskinen et al., 2008).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과학 문헌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으로, 도입 이후 학문적 성과와 동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아왔다(Chen et al., 2018; Donthu et al., 2021; Ellegaard & Wallin, 2015; Li & Lei, 2020). 초기에는 단순한 인용 추적에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방대한 학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와 방법론을 포함하는 정교한 체계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논문 및 학술지 성과 평가, 협업 패턴 분석, 지적 구조의 시각화, 그리고 새로운 연구 동향 파악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된다(Laengle et al., 2020; Ragazou et al., 2022; Passas et al., 2022). 이 분석 기법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의 진화와 핵심 기여를 효과적으로 조명하며,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판물, 저자, 저널을 식별하고 연구 주제의 시간적 발전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학술 연구의 구조적 특징과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3.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론

3.1. 자료 수집 및 처리과정

본 연구에서는 수어에 나타나는 문법화 현상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초기 검색 단계에서는 Web of Science (이하 WoS)와 Scopus의 두 주요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문헌을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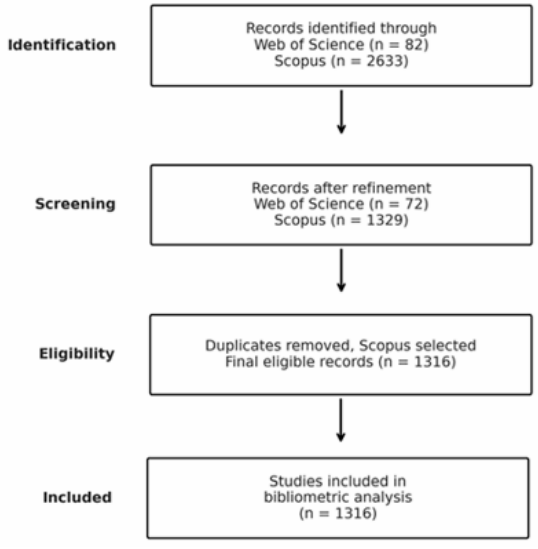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WoS를 데이터베이스로 선정한 이유는 WoS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의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성 높은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이고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용 색인으로 평가되는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 Science Citation Index (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와 같은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량서지학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Li et al., 2023; Talan, T., & Demirbilek, M., 2023). 또한, Scopus는 Web of Science보다 수어학, 언어학, 사회언어학, 인지과학 등 다학제적 학술지에 대한 색인이 더욱 광범위하며, 검색 필터와 문헌 구조가 계량서지학 분석에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어 문법화 관련 출판물의 서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검색 필터를 'Topic(주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1)에 제시된 주제 문자열(topic strings; TS)을 활용하여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수어'라는 표현 외에도 해당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련 용어들을 추가로 포함하여 검색의 범위와 포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TS =("grammaticali*" OR "grammatici*" OR "language change" OR "morphosyntactic change" OR "functional shift" OR "grammatical function") AND ("sign language*" OR "signed language*" OR "visual-gestural" OR "manual modality" OR "gesture-based language")

또한, 본 연구를 위해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 및 선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문헌 식별-선별-적격-포함의 네 단계를 거친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검색 단계에서는 WoS와 Scopus의 두 주요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과 같은 주제 문자열로 문헌을 검색하였다.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위해 이러한 문자열로 검색된 결과에서 정제 작업을 거쳐 다음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데이터 셋(Data Set)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WoS의 Topic 검색 필드를 활용하여 (1)과 같은 주제 문자열(topic strings: TS)에 문법화와 수어 관련 주요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총 82편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출간연도, 문서유형, 언어 등



[그림 1] PRISMA 자료 수집과정

의 정제(refinement) 작업을 거친 후에 총 72개가 추출되었다. 유의미한 양적 분석을 위해서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문헌 확보를 위해 Scopus의 Advanced Document Search 기능을 활용하였다.

Scopus에서 WoS와 동일한 검색어 조합을 적용한 결과, 총 2633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Wos의 자료 추출 과정과 유사하게 정제 작업을 진행하여 출간연도는 1984년에서 2024년까지로 정하고, 문서 유형은 논문과 학회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출처 유형은 저널과 학회 프로시딩지로 제한하고 언어는 영어로 된 자료만 검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329편의 서지 정보가 포함된 논문을 수작업으로 선별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bibliometric file(.bib)로 저장하여 계량서지학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1,329편의 원 자료를 R 패키지, 특히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특화된 Bibliometrix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알고리즘 연동앱인 Biblioshiny에 업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1,316편의 분석 대상을 데이터 셋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로, 문헌의 포괄적인 검토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3.2. Biblioshiny 분석 기법과 적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대 계량서지학 기법을 활용하여 서론에서 제시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주요 기법으로는 계량서지학적 성과(performance) 분석이 있으며, Donthu et al.(2021)의 지침과 권장사항에 따랐다. 이들 기법에는 출간 횟수 분석, 인용 영향력 분석, 공동 키워드 분석(Zupic & Čater, 2015)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중심성(centrality) 정도(Freeman, 1978), Bibliometrix R 패키지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클러스터링, 시각화(visualization) 기법, 페이지랭크 기반의 강화(enrichment) 기법 등이 사용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수어 문법화의 출간물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Annual Science Production”과 “Thematic Evolution” 시각화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여 수어 문법화 연구의 연간 학술 성과와 시기별 주요 연구 주제 진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코퍼스 언어학에서 학자들이 코퍼스 키워드(Jhang et al., 2020; Scott & Tribble, 2006)를 통해 키워드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저자 키워드(AK)와 키워드 플러스(KP)의 빈도 변화를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요 주제(key themes)의 연구 동향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관련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Most Frequent Words”, “Co-occurrence Network”와 “Thematic Map”의 자료를 KP로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을 활용하여 수어 연구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법화 관련 연구의 주제 맵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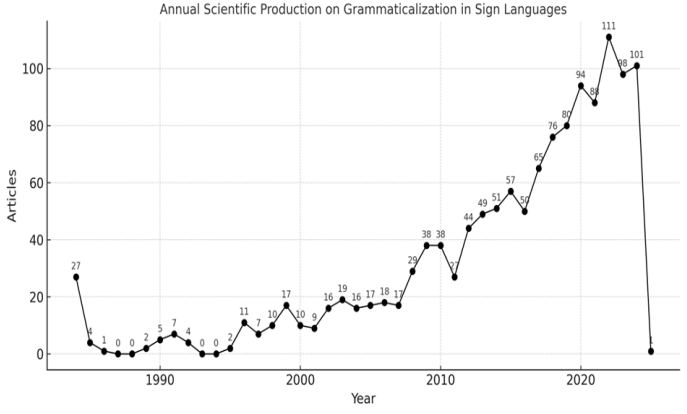
4. 연구 결과와 논의 사항

4.1. 출간물 동향(Publication Trends)

4.1.1. 연간 출간 연구 성과물 횟수와 학술 성과 동향

출간된 연구 성과물의 양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숙도와 연구 활동의 활발함, 그리고 전반적인 발전 경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의 출간 연도는 1984년부터 2024년까지로, 아래 [그림 2]는 수어에서 문법화와 관련하여 연도별로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어에서의 문법화에 관한 연구의 연간 출간 현황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분석 대상은 1984년부터 2024년까지의 총 1,316편의 문헌이며, 연도별 출간 편수는 해당 주제의 학문적 발전 경로와 학계 내 논의 확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간 출간 수가 0~5편 수준에 머물며, 수어에서의 문법화는 학문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주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리언어 중심의 문법화 이론(Heine & Kuteva, 2007; Hopper & Traugott, 1993)의 기초를 세우는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수어는 여전히 '언어적 객체'로서의 인식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그림 2] 수어 문법화의 연간 출간 횟수 및 학술 성과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로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법화와 관련된 연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0년 이후는 수어 연구의 인지적·통사적 접근이 활발해지고, 시공간적 특성과 도상성, 비수지 요소 등을 포함한 수어 고유의 언어 구조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한 시기이다(Pfau, Steinbach, & Woll, 2012; Sandler, W., 2006).

이와 같은 흐름은 그래프상에서도 명확히 확인되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0편 이상이 발표되면서 정량적 측면에서 연구가 급성장한 시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문법화 연구의 유형론적 확장, 수어 문법화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접근의 도입(Aria & Cuccurullo, 2017), 그리고 다학제적 연구 환경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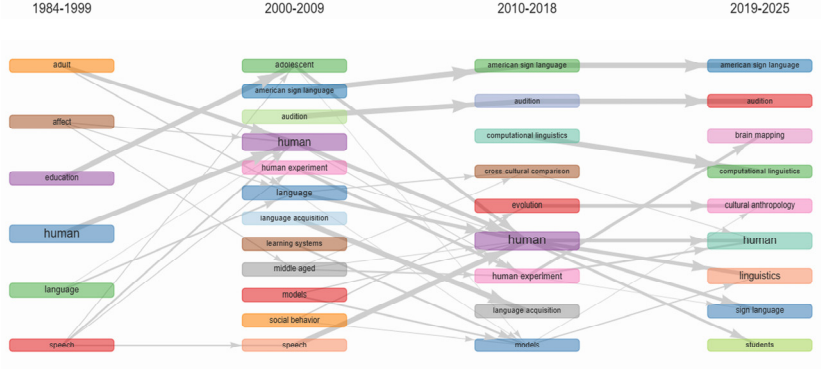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수어 문법화 연구의 출발, 성장, 정착 과정을 통시적으로 보여주며, 이 분야가 초기 단편적 연구에서 학문적 체계를 갖춘 독립 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계량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4.1.2. 연구 주제의 진화 동향

수어 문법화 연구의 주제 흐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84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KP 기반 주제 진화 분석(thematic evolution)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로 중심적으로 다루어진 개념들이 후속 시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전이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수어 문법화 연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구 주제의 동향을 보다 설득력 있게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주제 진화 분석을 네 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선행연구들(Lee & Jhang, 2024; Liu & Jhang, 2024)을 참조하여 네 개의 시기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시기 구분은 수어 문법화 관련 출간물의 빈도와 연구 활발성의 변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네 시기의 구체적 구분 및 각 시기별 대표 연구 주제의 전이 양상은 [그림 3]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 수어 문법화 연구 주제의 진화 동향

각 시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 1기는 1984년부터 1999까지의 시기로 개념 정립 및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기간이었다. 이 시기는 수어 문법화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된 초기 단계로, human, language, education, speech, adult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형성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인간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지적 기반을 탐색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특히 성인 학습자(adult)와 인간(human)을 중심으로 한 언어 처리와 언어 습득에 대한 심리 언어학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의 키워드는 다음 시기의 주제들과 유의미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며 기초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

그 다음으로 수어 발달과 실험 기반 확장에 중점을 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제 2기이다. 이 시기에는 american sign language, adolescent, learning systems, human experiment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출현하며, 수어의 언어학적 구조뿐 아니라 습득 및 발달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 강화되었다. models, language acquisition, middle aged, social behavior 등도 등장하며, 연령 및 사회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다층적 접근이 나타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수어가 단지 시각적 언어가 아니라 실험 가능한 언어 현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제 3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로 이론적 확장과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활성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중심 키워드로는 computational linguistics, cross-cultural comparison, evolution, audition, american sign language 등이 포함되며, 언어 변화와 진화에 대한 통시적 탐색, 수어와 청각 처리 간의 연관성, 계산언어학을 통한 구조적 분석 등 다학제적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evolution과 cross-cultural comparison의 등장은 수어 문법화 연구가 언어 보편성 및 유형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제 4기는 기술 기반 분석과 문화적 확장을 도모하는 시기이다. 가장 최근 시기인 2019년 이후에는 brain mapping, cultural anthropology, students, sign language, linguistics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수어 연구가 신경 언어학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뇌 기반 언어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cultural anthropology의 출현은 수어 문법화 연구가 언어 구조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언어 기능과 진화에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students와 같은 키워드는 수어의 교육적 적용, 특히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연계된 문법화 연구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다.

본 시기별 연구 주제 진화 분석은 수어 문법화 연구가 초기에는 일반 언어학과 인지언어학의 범주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발달심리학, 계산언어학, 신경과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수어 문법화라는 주제가 단일한 언어 현상에 머무르지 않

고, 언어의 본질, 인간 인지, 사회문화적 진화에 이르는 폭넓은 학문적 함의를 갖는 주제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며,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 설계와 정책적 적용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4.2. 키워드 중심 비교 분석

4.2.1. 키워드 빈도수 및 주요 연구 주제 비교 분석

연구자는 학술 논문에 일련의 키워드를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주제를 학문적으로 특정화하고, 관련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키워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연구자의 인식 틀과 주제 지형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Jeon, 2024).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수어 문법화 관련 논문에서 나타나는 키워드 사용 경향을 저자 키워드(Author Keywords; AK)와 키워드 플러스(Keywords Plus; KP)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K로 설정된 키워드 수는 총 2,910개, KP는 1,725개로 확인되었다. 이 중 2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는 각각 AK 618개, KP 660개였으며,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AK 53개, KP 118개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KP 설정 방식에 비해, 이번 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설정한 AK의 상위 빈출 키워드 수가 오히려 더 적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KP 방식이 주제 간 일반화된 연관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Lee & Jhang, 2024).

다만 AK는 보다 정제된 연구자 중심의 개념 구성을 반영하므로, 각 방식은 그 자체로의 한계와 강점을 지니며, 수어 문법화 연구의 주제 구조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방식의 상호보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AK와 KP 모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핵심 주제(key themes)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공통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15개 항목을 [표 1]에 정리하여, 수어 문법화 연구의 주제적 중심축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1]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sign language’는 AK(148회)와 KP(254회) 양쪽에서 모두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기록하였으며, 수어 문법화 연구의 중심 범주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KP에서의 높은 빈도는 수어 관련 연구가 언어학을 넘어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폭넓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gesture’, ‘iconicity’, ‘grammaticalization’

등은 AK에서만 높은 빈도를 보이고 KP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어 문법화가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주제임을 의미한다. 즉, 이들 키워드는 현재까지는 연구자의 개별적 관심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하며, 아직까지는 수어 연구 전체의 주류 키워드로 확산되지는 않았음을 또한 시사한다.

[표 1] 수어에서의 해당 주제 빈출 키워드 비교 현황

순위	저자 키워드(AK)	출현횟수	키워드 플러스(KP)	출현횟수
1	sign language	148	language	357
2	gesture	78	human	334
3	language evolution	57	humans	274
4	language	54	male	272
5	iconicity	47	female	271
6	grammaticalization	39	adult	260
7	american sign language	38	sign language	254
8	syntax	36	linguistics	219
9	language acquisition	35	article	214
10	phonology	34	language development	176
11	deaf	31	child	146
12	language emergence	27	learning	144
13	word order	27	cognition	124
14	sign languages	26	semantics	107
15	language change	25	human experiment	106

특히 ‘grammaticalization’ 키워드는 AK에서 39회의 출현 빈도를 보여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지만, KP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수어 문법화가 명시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기존 문헌에서 관련 개념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법화 이론이 수어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현황을 반영하며, 향후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다.

‘gesture’와 ‘iconicity’는 수어의 물리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문법화 이론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제스처 기반 표현이 반복되고 고정화되는 과정을

거쳐 문법적 기능을 갖춘 구조로 변화하는 현상은 수어 문법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공간 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제스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점차 인칭 대명사나 지시사로 기능화되는 과정은 의미의 탈색(semantic bleaching) 및 일반화(generalization)라는 전형적인 문법화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한편, ‘syntax’, ‘phonology’, ‘language acquisition’ 등의 키워드는 수어의 구조적 특징과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문법화 연구에서 중요한 분석 단위를 제공한다. 수어의 통사적 실현은 공간성(spatiality) 및 수형 구문구조(handshape construction) 등 시각적-동시적 요소들을 포함하므로, 전통적인 문법화 이론의 범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KP 상위 항목 중 ‘human’, ‘male’, ‘female’, ‘child’, ‘adult’ 등은 실험언어학 기반의 인지 및 신경언어학적 수어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로, 문법화가 단순한 언어 내 구조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생물학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강조한다. 이로부터 수어 문법화 연구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인지·심리·사회 언어학적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AK와 KP의 비교 분석은 수어 문법화 연구가 아직까지 명시적인 중심 주제로는 자리 잡지 못했지만, 여러 핵심 하위 주제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론적·실증적 기반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수어 문법화 연구가 보다 구조화된 이론 틀과 대규모 코퍼스 기반 분석을 통해 심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연구자 주도의 주제 설정과 데이터 기반 주제 흐름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학문적 발전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본다.

또한, [표 1]만 살펴보면 음영으로 표시된 몇 개의 키워드를 제외하고 공통되는 키워드가 보이지 않으나,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나열하지는 못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AK와 KP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은 상당히 많았으며 5개의 관련 주제별 클러스터로 설정하여 정리한 것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어에서의 빈출 연구 키워드의 주제별 클러스터 분류

Cluster	주제별	주요 공통 키워드
1	언어 인지 및 발달	cognition,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brain development, executive function, theory of mind, memory
2	수어 구조 및 문법	sign language, american sign language, syntax, grammar, phonology, gesture, classifier, handshape, mod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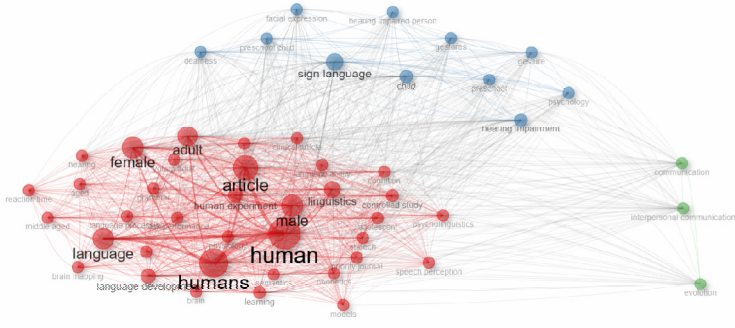
Cluster	주제별	주요 공통 키워드
3	언어 변화 및 문법화	language change, language evolution, language emergence, grammatical gender, semantics, lexicon, function words
4	사회적 환경 및 농인 연구	deaf, deaf education, bilingualism, multilingualism, social cognition, communication, variation
5	연구 방법론 및 기술	corpus, corpus linguistics, computational modell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s, visual perception

4.2.2. 동시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비교 분석

동시출현 네트워크는 문헌 내에서 키워드 간의 상호 관계를 시각화함으로써 학문 분야의 구조와 지식 영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키워드가 연구 문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를 기반으로 연결을 맵핑하며, 학문적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특정 분야의 구조적 구성 요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수어 문법화 연구의 주제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앞 절에서는 AK와 KP에서 공통으로 출현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섯 개의 주제 클러스터를 도출하였다. 이 클러스터들은 수어 문법화 연구가 언어 인지,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변화 등 다양한 하위 분야를 포괄하며, 단일 이론 틀에 국한되지 않는 다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류의 구조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주제 간 연계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KP 기반의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는 Biblioshiny를 활용하여 생성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로, 주요 키워드 간의 상호 연결성과 군집 구조를 중심성과 응집도 차원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Biblioshiny에서 추출한 KP의 Co-occurrence Network

분석 결과, 총 세 개의 주요 클러스터가 중심적으로 형성되었다. 첫 번째 클러스터(빨간색)는 human, language, linguistics, cogni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앞 절의 제1 클러스터인 '언어 인지 및 발달' 및 제3 클러스터인 '언어 변화 및 문법화'와 주제적으로 상응한다. 이 군집은 수어 문법화 연구가 인지언어학 및 심리언어학적 접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클러스터(파란색)는 sign language, gesture, hearing impairment, child, preschool 등 수어의 구조 및 습득 환경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수어 구조 및 문법'(제2 클러스터) 및 '사회적 환경 및 농인 연구'(제4 클러스터)의 범주를 반영한다. 이 군집은 수어 문법화 연구가 언어 구조뿐 아니라 언어 사용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조건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클러스터(초록색)는 communica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volution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언어의 사회적 동기와 통시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영역이다. 이 군집은 '언어 진화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주제 아래 문법화 현상이 언어 외적 요인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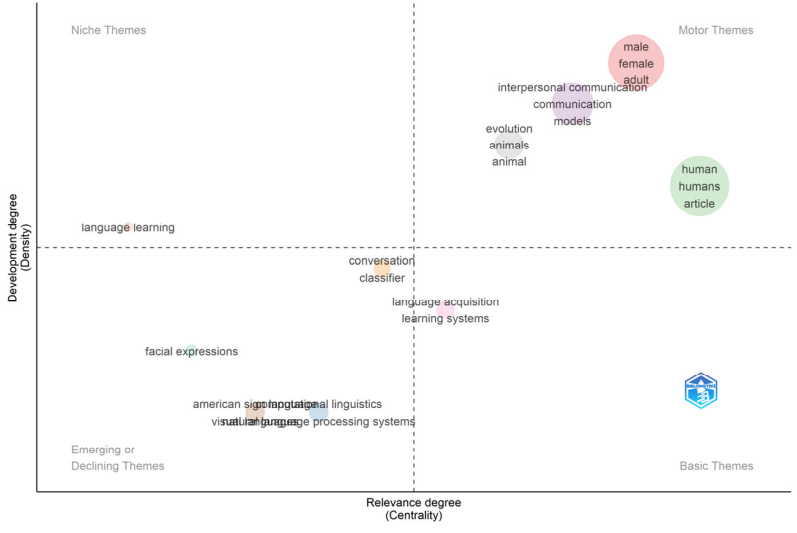
특히 sign language와 language는 텍스트 기반 클러스터링과 네트워크 분석 모두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수어 문법화 연구의 핵심적 주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language acquisition과 learning systems는 기본 주제군에 포함되면서도 신흥 주제군과 경계에 위치한 키워드로 나타나, 향후 기술 기반의 수어 습득 연구나 계산언어학적 접근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 기반 주제 클러스터링과 네트워크 기반 시각 분석을 병행한 결과는 수어 문법화 연구의 복합적인 주제 지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연구 주제 간 상호 연계성과 중심 축의 구조적 배치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본 분석의 가장 큰 의의는 AK와 KP라는 두 이질적 키워드 체계 간의 통합적 비교를 통해, 수어 문법화 연구의 주제 구조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 특히 키워드 클러스터링과 동시출현 네트워크라는 상이한 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상호 보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을 통해 수어 문법화 연구에서 어떤 주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주제들이 전체 연구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잘 조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어떤 세부 주제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예측하거나,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새로운 연구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2.3. 주제 맵(Thematic Map) 분석

계량서지학적 연구에서는 주제 맵 분석을 통해 수어 문법화 연구에서 형성된 주요 키워드 클러스터를 중심성(centrality)과 밀도(density)의 두 축 위에서 분류하고 해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헌 내 다양한 연구 주제는 기본 주제(basic themes), 중심 주제(motor themes), 틈새 주제(niche themes), 그리고 신흥 또는 쇠퇴 주제(emerging/declining theme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각 주제의 연구 네트워크 내 위치와 응집력,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유효한 기준이 되며, 수어 문법화 연구의 학문적 성숙도와 확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KP를 기준으로 생성된 주제 맵을 통해 네 가지 주제군을 식별하였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5]이다.



[그림 5] KP로 추출하여 생성된 주제 맵(Thematic Map)

먼저, [그림 5]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중심 주제들은 중심성과 밀도 모두 높은 핵심 발전 영역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male, female, adult, communica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volution, models 등의 키워드는 수어 문법화 연구가 단지 언어 내부의 구조적 변화만이 아니라, 인지 실험, 사회언어학, 언어 진화 이론 등과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human, humans, article은 중심

주제 중에서도 기본 주제에 가까이 나타남을 볼 때 향후 인지, 발달, 문화적 요소와의 연계를 통해 분석적 깊이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개념이다. 이들 키워드는 내부 응집력과 외부 연결성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어 문법화 연구가 성숙하고 통합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language acquisition과 learning systems는 주제 맵에서 기본 주제로 분류되었으나, 동시에 신흥 또는 쇠퇴 주제 영역과의 경계에 위치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키워드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두 키워드는 수어 문법화 연구 내에서 폭넓은 주제들과 연관되며 중심성이 높은 반면, 해당 키워드들이 구성하는 내부 클러스터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응집력은 다소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learning systems의 경우, 수어 인식 기술, 디지털 학습 도구,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computational linguistics나 visual language와 같은 신흥 주제 영역과 이론적·기술적으로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키워드들은 고정적인 주제로 머무르기보다는, 연구 지형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중심 주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유동적 위치에 있는 키워드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키워드는 주제 맵 내의 단순한 분류를 넘어, 수어 문법화 연구의 확장성과 다학제적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연구 설계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좌측 상단에 위치한 틈새 주제는 밀도는 높지만 중심성이 낮은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language learning이 대표적이다. 이는 수어 습득과 학습자 기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으로, 특정 하위 분야에서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 수어 문법화 연구 네트워크 내에서는 아직 한정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향후 교육공학, 인공지능 기반 수어 학습 시스템 등과의 융합을 통해 중심 주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좌측 하단의 신흥 또는 쇠퇴 주제는 중심성과 밀도 모두 낮은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American Sign Language, computational linguistics, visual language, facial expression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주제는 현재 연구 흐름에서 신흥 분야로 발전 중이거나, 과거 주목받았으나 최근 쇠퇴하고 있는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들 키워드는 한편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활발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연구 관심이 줄어든 영역일 수도 있다. 특히 computational linguistics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stems는 수어 문법화 연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와 관련되며, facial expressions는 수어의 비수지(non-manual) 구성요소 분석과 연결되어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그림 5]의 시각자료가 단순한 데이터 시각화에 그치지 않고, 각 주제군이 수어 문법화 연구의 이론적 기반 및 확장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설함으로써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후속 연구자들이 각 주제의 상대적 위치와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고, 연구 공백 영역 또는 융합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학제 간 연구 설계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수어에서의 문법화 연구 동향을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난 40년간의 연구 흐름과 주제 구조를 정량적이고 시각적으로 조망하였다. 분석 결과, 수어 문법화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활성화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다학제적 관점과 이론적 확장을 통해 학문적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7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며 양적 성장을 본격화하였고, 이는 수어의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확장과 언어 변화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AK와 KP를 비교 분석한 결과, ‘sign language’, ‘language’, ‘cognition’, ‘syntax’, ‘grammaticalization’, ‘gesture’ 등 수어의 구조적 특성과 인지적 기능에 기반한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구성된 동시출현 네트워크와 주제 맵 분석에서는 수어 문법화 연구가 ‘언어 인지 및 발달’, ‘수어 구조 및 문법’, ‘언어 변화 및 문법화’, ‘사회적 환경과 농인 연구’, ‘연구 방법론 및 기술’이라는 다섯 개의 주요 주제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수어 문법화 연구가 단일한 언어현상에 대한 탐구를 넘어, 인지과학, 사회언어학, 계산언어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학문 지형 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수어 문법화 연구의 현재적 위상과 구조를 실증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연구 주제 간 상호 연관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수어 문법화 연구가 언어 보편성의 틀 안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확립하고 있으며, 문법화 이론의 적용과 확장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어권 중심의 문헌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 수어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수어별 지역적 특성(예: 한국수어, 일본수어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그리고 키워드 중심의 정량 분석이 논문 본문의 심층적 의미까지 포괄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영어권 수어 문헌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비교 계량서지학 분석을 통해 수어 간 문법화 양상의 유사성과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언어 처리 기법이나 딥러닝 알고리즘 등을 접목한 융합 연구를 통해, 수어 문법화 현상을 보다 정밀하고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Al-Jamimi, H. A., BinMakhashen, G. M., & Bornmann, L. (2022). Use of bibliometrics for research evaluation in emerging markets economies: A review and discussion of bibliometric indicators. *Scientometrics, 127*(10), 5879-5930.

Aria, M., & Cuccurullo, C. (2017). Bibliometrix: An R-tool for comprehensive science mapping analysis. *Journal of Informetrics, 11*(4), 959-975.

Chen, X., Xie, H., Wang, F. L., Liu, Z., Xu, J., & Hao, T. (2018). A bibliometr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medical research. *BMC Medical Informatics and Decision Making, 18*, 1-14.

Donthu, N., Kumar, S., Mukherjee, D., Pandey, N., & Lim, W-M. (2021). How to conduct a bibliometric analysis: An overview and guidelin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33*, 285-296.

Ellegaard, O., & Wallin, J. A. (2015). The bibliometric analysis of scholarly production: How great is the impact? *Scientometrics, 105*, 1809-1831.

Freeman, L. C. (1978). Segregation in social network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6*(4), 411-429.

Givón, T. (2000). Internal reconstruction: As method, as theory. In Spike Gildea (Ed.), *Reconstructing grammar: Comparative linguistics and grammaticalization,* (pp. 107-159).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Handoyo, S. (2024).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A bibliometric analysis of global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Production & Manufacturing Research, 12*(1), 2422614.

Heine, B., & Kuteva, T. (2007). *The genesis of grammar: A reconstr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opper, P., & Traugott, C. E.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on, H. (2024). A bibliometric analysis of themes and network structures in sign language policy.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1*(2), 331-351.

Jhang, S-E., Park, H-M., Yaochen, D., & Lee, S-H. (2020). Themes and trends in global maritime journal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2*(2), 37-81.

Koskinen, J., Isohanni, M., Paajala, H., Jääskeläinen, E., Nieminen, P., Koponen, H., & Miettunen, J. (2008). How to use bibliometric methods in evaluation of scientific research?: An example from Finnish schizophrenia research.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62*(2), 136-143.

Kuteva, T., Aarts, B., Popova, G., & Abbi, A. (2019). The grammar of 'non-realization'. *Studies in Language, 43*(4), 850-895.

Laengle, S., Merigó, J. M., Modak, N. M., & Yang, J-B. (2020). *Bibliometrics i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A university analysis*. Ann. Oper. Res. 294, 769-813.

Lee, S., & Jhang, S. (2024). A global bibliometric analysis of sign Language Research: Trends and Technological Evolution.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1*(2), 371-403.

Li, D., Ou, J., Zeng, Y., Hou, L., Yuan, Y., & Luo, Z. (2023). Bibliometric study on clinical research of osteoporosis in adolescent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1041360.

Li, J., Lei, L., & Cheng, L. (2019). Mapping evaluation, appraisal and stance in discourse (2000–2015): A bibliometric analysis. *Glottotheory*, *10*(1), 31-55.

Liu, C., & Jhang, S.-E. (2024). A bibliometric analysis of language acquisition: A comparative study of spoken and sign languages. The 2nd Workshop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Acquisi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eillet, A. (1915). *Le renouvellement des conjonctions*. In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Section des sciences historiques et philologiques. Annuaire 1915-1916, 9-28.

Moyse-Faurie, C. (2004). *Recherches en Linguistique Océanienne.* Ph.D. Dissertation.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Passas, I., Ragazou, K., Zafeiriou, E., Garefalakis, A., & Zopounidis, C. (2022). ESG controversi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sociopolitical determinants in EU firms. *Sustainability, 14,* 12879.

Pfau, R., & Steinbach, M. (2004). On grammaticalization: Do sign languages follow the well-trodden paths. In Poster presented at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Barcelona: Universitat Pompeu Fabra.

Pfau, R., Steinbach, M., & Woll, B. (Eds.). (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 Boston: De Gruyter Mouton.

Pritchard, A. (1969). *Statistical bibliography: An interim bibliography.* London: Society for International Bibliography.

Ragazou, K., Passas, I., Garefalakis, A., & Dimou, I. (2022). Investigating the research trends on strategic ambidexterity, agility, and open innovation in SMEs: Perceptions from bibliometric analysis.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8*(3), 118.

Sandler, W. (2006). *Sign language and linguistic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ott, M., & Tribble, C. (2006). *Textual patterns: Keyword and corpus analysis in language education.* Amsterdam: Benjamins.

Talan, T., & Demirbilek, M. (2023).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on learning analytics based on web of science database. *Informatics in Education, 22*(1), 161-181.

Zupic, I., & Čater, T. (2015). Bibliometric methods i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8*(3), 429-472.

Zwitserlood, I. (2012). *Grammaticalization in sign languages*. In Bernd Heine & Heiko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pp. 712-72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선혜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경영관(C25동) 인문사회과학동 1027호
부경대학교 강사
전 화: 051-629-5371
이메일: shlee2022@pknu.ac.kr

논문접수: 2025년 5월 20일
수정완료: 2025년 6월 14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16일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2. No. 1 (2025) pp.041~056

농학생 대상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 교육 연구: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을 기반으로*

이 효 진 · 원 미 진**
(연세대학교)

Lee, Hyojin & Won, Mijin. 2025. A Study of Education in Korean ‘-i/ga’, ‘-eun/neun’ for Deaf Students: Based on Bilingual and Bicultural Approach.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2*(1), 41-56.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cquisition patterns of the Korean articles ‘i/ga’ and ‘eun/neun’ in relation to their semantic functions among Deaf students, Hear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hinese Korean learners. Additionally,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are provided regarding effective pedagogical strategies for instructing the articles ‘i/ga’ and ‘eun/neun’ to Deaf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verall acquisition patterns of the examined groups vary according to the specific semantic functions. Notably, the Deaf group and the Hearing group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all semantic functions, except for the subject function and the specifying function of the article ‘i/ga.’ Conversely, the Deaf group and the Chinese learners demonstrat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y semantic functions, except for the old information function of the article ‘eun/neu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anguage acquisition profile of Deaf students is more akin to that of Chinese Korean learners than to native Korean speakers. Consequently,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Deaf student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 Oral Speec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ilingual and Bicultural Approach, Deaf Students

---

* 본 논문은 이효진(2024)의 석사 논문을 일부 요약하고 발전시킨 논문이다.
** 주저자: 이효진, 교신저자: 원미진

1. 들어가기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농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자 2016년『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한국수어를 독립된 하나의 언어로써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결론적으로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이전에도 농인들만의 언어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소통을 하나의 문화로서 수용하고자 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Bilingual & Bicultural, 2Bi) 접근법이 제기되었다(최성규, 2007b; 권순황, 2009 등).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은 농인의 제1언어를 수어로, 제2언어를 한국어로 인정함으로써 농인의 언어인 수어와 농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농인의 농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에는 그들의 두 가지 언어인 수어와 문어를 사용하여 공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언어 능력을 모두 능통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김영욱, 2004). 미국에서는 이중언어교육 접근법에 따라 농아동에게 수어를 먼저 배우게 하고, 그 후 영어를 제2언어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으며(장진석, 2012), 이전 연구 결과에서도 농아동의 자연 수어와 문어의 언어 능력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Hoffmeister, 1997; Padden & Ramsey, 2000). 따라서 이중언어교육에서 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제1언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상해야 한다(中島和子, 2012). 청인 아동의 경우 제1언어가 한국어이고, 제2언어나 외국어는 각자의 교육 환경에 따라 선택한다. 다만 농아동의 경우 제1언어와 제2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농아동의 90%는 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먼저 접하지만 청력 손실로 인해 청인 아동과 동일하게 한국어를 제1언어로서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이서진, 2014). 또한 농아동은 한국어가 주류인 사회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닌 제2언어가 된다. 따라서 농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교육 접근법은 제2언어인 한국어의 문어 능력 향상을 통해 한국 사회, 즉 주류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며(최성규, 2007a), 수업의 측면에서는 수어와 문어를 함께 지원하는 교수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Moores & Martin, 2006).

다만 김영욱(2004)에서는 농아동의 이중언어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문자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 제1언어로서의 수어 접근 및 교육의 일관성 문제, 서로 다른 양식 간의 언어 전이 문제, 교실 언어로서의 수어 문제, 이중언어 교사의 부재 및 양성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을 적용하여 이중언어교육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인, 청인, 한국어 학습자를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습득 양상을 살피고,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농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조사 교육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농인 대상 한국어 조사에 관한 연구로는 송혜경 · 석동일(2006), 김응범(2009), 김용세(2009), 이서진(2014)이 있다. 송혜경 · 석동일(2006)에서는 수어-구화 이중언어 사용 청각장애학생 20명과 구화 사용 청각장애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문장 만들기 과제를 통한 격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격조사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수어-구화 사용 집단보다 구화 사용 집단이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수어-구화 사용 집단이 언어 규칙에 있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응범(2009)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중학생 56명을 대상으로 현장 학습 일지나 일기 등의 쓰기 과제를 통해 문장 오류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어미, 단어와 구, 어순, 사동과 피동, 시제 등에서 오류가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한국어 문법과 한국수어 문법이 다르고 한글이 한국수어가 아닌 한국어를 적는 문자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용세(2009)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청소년 13명과 건청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쓰기에서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청 청소년이 인공와우 이식 청소년보다 정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사 오류 유형에 있어서는 탈락 오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용세(2009)는 두 청소년 집단의 차이가 아동기 때부터 조사 사용의 능력에서 격차가 나타난 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서진(2014)은 농인 대학생 20명과 건청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보고 쓰기 과제를 통해 나타나는 문법

오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인을 동시적 이중언어로서의 수어사용자(8명)와 순차적 이중언어로서의 수어사용자(12명)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전자는 제1언어가 한국수어, 제2언어가 한국어인 농인을 의미하고 후자는 아동기 때 한국어 구화 교육을 통해 제1언어를 한국어로 사용하고, 대학생 이후 수어를 배운 농인(구화인)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조사 오류에서 모든 농인 집단, 즉 농인과 구화인 집단 모두 청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화인 집단이 조사 오류에서 좀 더 낮은 오류율을 보임을 밝혔다. 이서진(2014)은 청인 집단과 차이를 보인 이유가 수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구화인 집단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구화를 사용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낮은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서진(2014)은 모든 농인 집단의 조사 오류 양상이 한국어 학습자와 유사함을 밝히며, 다른 외국어와 한국어의 대조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듯 수어와 한국어의 대조 분석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농인의 언어 사용 환경에 따라 한국어 조사 사용 및 오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위 연구들은 농인의 조사 오류의 원인이 농인의 언어 사용 환경의 차이와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언어적 차이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서진(2014)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농인의 조사 오류 유형은 한국어 학습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조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청인 집단과는 구별된 농인 집단만의 언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도 함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인 중·고등학생과 청인 중·고동학생, 그리고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

2.1. 조사 '이/가', '은/는'의 정의

『한국어 표준 문법』에 따르면 주어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체언 및 체언 자격을 갖는 요소에 주격조사가 결합해 이루어진다. 주격조사로는 '이/가', '께서', '에서', '이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주어에 주격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도 결

합할 수 있는데, 보조사는 결합하는 명사구에 추가적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다. 보조사로는 '만', '도', '은/는', '까지', '(이)나' 등이 있는데, 이 중 대조, 화제 제시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보조사 '은/는'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은/는'은 체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문장성분에 비교적 자유롭게 연결 가능하지만 문두의 주어 자리에 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조사이기 때문이다(오아림, 2021, p. 31).

보조사 '은/는'은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도 주격조사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표준 문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주어 자리에는 주로 '은/는', '이/가'가 함께 쓰인다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도 보조사 '은/는'을 주어를 나타내는 격 표지로 받아들이는 오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도 조사 '은/는', '이/가'를 초급에서 먼저 접하나 한국어 숙련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문법 항목 중 하나이다(수해붕,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와 대응하는 보조사 '은/는'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2.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을 분석한 연구로는 남기심(1972), 임홍빈(1998), 채완(1976), 고석주(2001), 김미형(2011) 등이 있다. 우선 조사 '이/가'의 의미적 기능은 크게 '배타성'을 지지하는 연구(남기심, 1972; 임홍빈, 1998 등)와 '선택적 지정'을 지지하는 연구(고석주, 2001; 김미형, 2011 등)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남기심(1972)은 '영희가 일등이다.', '백두산이 제일 높다.' 문장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희', 다른 산이 아니라 '백두산'을 나타내기 위해 조사 '이/가'가 쓰였기 때문에 조사 '이/가'가 배타적 지칭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임홍빈(1998)에서도 조사 '이/가'를 배타적 대립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주어에 대응하는 명사, 또는 그런 개념인 '주사'와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인 '빈사' 사이의 의미론적, 논리적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임홍빈(1998)은 '이/가' 구문은 주사(A)와 빈사(B) 사이에 합동 관계(A=B)가 성립되는 비정언문이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랑이 죄악이다.' 문장에서 사랑(A)과 죄악(B)이 합동의 관계를 가져 조사 '이/가'가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A1이 B와 합동의 관계를 가질 때 다른 A2, A3 등과는 배타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조사 '이/가'는 배타적 대립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 고석주(2001)는 배타성의 의미가 조사 '이/가'와 관계없이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고, 조사 '이/가'가 쓰인 명사구가 배타성의 의미로 항상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이/가'는 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특히 '철수가 먼저 도착했다.' 문장에서처럼 '가장', '먼저' 등과 같이 비교되는 다른 대상이 있음을 함축하는 표현에서는 반드시 조사 '이/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조사 '이/가'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지정인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김미형(2011)에서도 조사 '이/가'가 술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주어 자매항을 선택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하는 선택적 지정의 의미를 가지게 만든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조사 '은/는'의 의미적 기능은 '주제'(남기심, 1972; 채완, 1976 등)와 '대조'(남기심, 1972; 채완, 1976; 임홍빈, 1998; 김미형, 2011 등)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남기심(1972)은 조사 '은/는'이 주제 제시와 대조의 기능을 모두 한다고 보았는데,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문장에서 '고래는'은 주제이고, '포유동물이다'는 앞선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였다. 또한 '철수는 이 책을 읽었다.' 문장은 '그러나 영호는 읽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대조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채완(1976)도 조사 '은/는'이 주제와 대조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는데, 두 기능이 나타나는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산이 많다.' 문장에서 조사 '은/는'은 주제를 나타내는데, '산이 한국에는 많다.' 문장에서는 조사 '은/는'이 문장 중간에 쓰여 주제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임홍빈(1998)은 '은/는' 구문을 주사(A)와 빈사(B) 사이에 귀속 관계가 성립되는 정언문이라고 하였는데, A1이 B와 귀속의 관계를 가질 때 A1에 선택되지 않은 다른 A2, A3 등과는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 '은/는'은 대조적 대립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미형(2011)에서도 조사 '은/는'은 조사 '이/가'와 반대로 주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술어 자매항을 선택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는 선택된 술어에 대응하여 선택되지 않은 술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 두 술어가 대립적 위치에 있을 때 대조성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 '이/가'의 의미적 기능을 '주어, 지정, 신정보'로 구분하고 조사 '은/는'의 의미적 기능을 '주제, 대조, 구정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

연구자	'이/가'	'은/는'
남기심(1972)	배타적 지칭	주제 제시, 대조
채완(1976)	-	주제, 대조
임홍빈(1998)	배타적 대립	대조적 대립
고석주(2001)	선택 지정	-
김미형(2011)	선택적 지정	대조성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농인 중·고등학생(이하 농인), 청인 중·고등학생(이하 청인),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이하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래 예문에서처럼 한국어는 격조사를 통해 문장성분을 나타내지만 한국수어와 중국어는 주로 어순을 통해 문장성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수어와 중국어는 모두 격조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격을 실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 간의 한국어 조사 습득 양상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1) 한국어
  a.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b. 동생이 밥을 먹어요.

(2) 한국수어
  {눈썹올리기}
  {눈크게뜨기}
  {입술동그랗게만들기}
  설명의문표지
  a. [이것] [그림] [무엇]
  또는 [그림] [이것] [무엇]
  b. [여동생] [먹다]

(3) 중국어

a. 这(이것)是(이다)什么(무슨)画(그림)?

b. 妹妹(여동생)在(-고 있다)吃(먹다)饭(밥)。

본 연구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집단	인원
농인[1]	16
청인	22
중국인 학습자	24
총 인원	62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ment Test, GJT)를 통해 세 집단의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습득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자료 수집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구글폼(Google Form) 형식으로 실행하였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글폼은 각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입력란과 빈칸 채우기 과제(Cloze Test)로 구성하였다. 또한 빈칸 채우기 과제는 모두 객관식으로, 15개의 실험 문항과 9개의 혼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2] 문항은 그림과 대화문을 함께 제시하며 연구 참여자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대 농인, 청인, 중국인 학습자 각 2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실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개의 혼란 문항 중 5개 이하를 맞힌 연구 참여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인 집단 15명, 청인 집단 22명,

1) 기존 연구에서는 농인 집단은 농인 8명과 구화인 8명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기존 연구에서는 단일주어문과 주격중출문에서의 조사 '이/가', '은/는'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12개의 주격중출문 문항도 함께 포함하여 총 36문항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1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조사 '이/가', '은/는' 습득 양상

4.1. 조사 전체 습득 양상

농인, 청인,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각 문항의 정답률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3]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집단	표본 수(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분석
전체	농인(a)	15	13.27	2.96	14.167***	.000	a, b<c
	중국인(b)	19	14.21	1.93			
	청인(c)	22	16.59	.96			
조사 '이/가'	농인(a)	15	7.00	1.60	5.019*	.010	a, b<c
	중국인(b)	19	7.11	1.29			
	청인(c)	22	8.09	.68			
조사 '은/는'	농인(a)	15	6.27	1.87	14.596***	.000	a, b<c
	중국인(b)	19	7.11	1.29			
	청인(c)	22	8.50	.60			

*p<.05 **p<.01 ***p<.001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에 따라 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전체 문항(F=14.167, p<.001), 조사 '이/가' 문항(F=5.019, p<.05), 조사 '은/는' 문항(F=14.596, p<.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각 문항의 습득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 사후분석(Duncan'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청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농인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시에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가 약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두 집단은 같은 경향을 드러낸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를 통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정도에 있어서 청인 집단에 비해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인 집단과 농인 집단이 동일한 연령대이고,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국어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농인 집단이 청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농인 집단과 청인 집단의 언어 습득 과정이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인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로 바라볼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4.2. 조사 '이/가' 습득 양상

본 절에서는 조사 '이/가' 습득 양상을 조사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이/가'의 의미적 기능은 주어 기능, 지정 기능, 신정보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4] 조사 '이/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주어 기능	농인(a)	15	1.93	.88	1.288	.284	-
	중국인(b)	19	1.95	.78			
	청인(c)	22	2.27	.63			
지정 기능	농인(a)	15	2.60	.63	2.637	.081	-
	중국인(b)	19	2.53	.51			
	청인(c)	22	2.86	.35			
신정보 기능	농인(a)	15	2.47	.74	3.593*	.034	a, b<c
	중국인(b)	19	2.63	.68			
	청인(c)	22	2.95	.21			

*p<.05 **p<.01 ***p<.001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조사 '이/가'의 의미적 기능 중 신정보 기능(F=3.593, p<.05)에서만 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 3]의 결과와 동일하며,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두 집단은 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인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고,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농인 집단의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주어 기능과 지정 기능에서는 집단 간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주어 기능에서의 평균 점수는 청인 집단, 중국인 학습자 집단, 농인 집단 순으로 높은 반면 지정 기능에서의 평균 점수는 청인 집단, 농인 집단, 중국인 학습자 집단 순으로 높았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농인 집단의 평균 점수의 순서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조사 '은/는' 습득 양상

본 절에서는 조사 '은/는' 습득 양상을 조사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은/는'의 의미적 기능은 주제 기능, 대조 기능, 구정보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5] 조사 '은/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
주제 기능	농인(a)	15	2.73	.46	3.332*	.043	a, b<c
	중국인(b)	19	2.79	.42			
	청인(c)	22	3.00	.00			
대조 기능	농인(a)	15	1.33	.98	11.549***	.000	a, b<c
	중국인(b)	19	1.63	.90			
	청인(c)	22	2.55	.60			
구정보 기능	농인(a)	15	2.20	1.08	6.290**	.004	a<b, c
	중국인(b)	19	2.68	.48			
	청인(c)	22	2.95	.21			

*p<.05 **p<.01 ***p<.001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조사 '은/는'의 모든 의미적 기능, 즉 주제 기능(F=3.332, p<.05), 대조 기능(F=11.549, p<.001), 구정보 기능(F=6.290, p<.01)에

서 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사 '이/가' 중 신정보 기능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해볼 만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 '은/는'의 주제 기능과 대조 기능에서 청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표 3]과 [표 4]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 값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사 '은/는'의 구정보 기능에서는 농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청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중국인 학습자 집단보다 농인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듯 농인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5. 농학생 대상 조사 '이/가', '은/는' 교육 방향성 제언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 결과에 따라 농인 집단, 중국인 학습자 집단, 청인 집단이 조사 '이/가', '은/는'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다른 습득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농인 집단과 청인 집단은 조사 '이/가'의 주어 기능과 지정 기능을 제외한 다른 의미적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조사 '은/는'의 구정보 기능을 제외한 다른 의미적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농인 집단은 청인 집단과는 상이한 언어 습득 과정을 지니고 있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는 비교적 유사한 습득 과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인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는 한국어 학습자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은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조사 '이/가'와 조사 '은/는'의 습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조사 '이/가'와 조사 '은/는'은 주어 자리에서 쓰이는 조사로서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습득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조사를 학습할 때 의미적 기능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조사 교육은 조사의 의미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수어와 중국어는 조사를 통해 문장 성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조사의 이형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 조사 교육은 형태 중심 교수법(Focus on forms)이나 의미 중심 교수법(Focus on meaning)이 아닌, 형태와 의미에 모두 집중하는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농인 집단과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조사 '이/가'와 조사 '은/는'의 대부분의 의미적 기능에서 유사한 습득 양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조사 '은/는'의 구정보 기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와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조사 교육은 각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하며, 본고는 이를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에 따라 적용해보고자 한다.

첫째, 성공적인 농인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해서는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적 기반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인의 이중언어교육 연구를 진행한 김영욱(2004), 김미은 · 서도원 · 윤병천(2007), 장진석(2012) 등에서는 제1언어로서의 수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하고 있었으며, 특히 김미은 · 서도원 · 윤병천(2007)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이 농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농학생에게 제1언어인 수어 통역을 지원할 때 제2언어인 한국어(문어) 습득과 연결된 학업 성취가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어 조사 교육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의 대조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인의 이중언어교육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는 달리 제1언어와 제2언어가 서로 양식(mode)이 다른 언어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는 음성언어에 기반을 둔 문자언어인 반면 한국수어는 시각언어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 환경에서는 목표어인 한국어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교수하는 것에 반해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 환경에서는 농인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제1언어인 수어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교수하여야 한다. 또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농인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교육에서는 형태 초점 교수법을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 영역에 집중한 한국어 조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문화는 매우 긴밀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인의 언어뿐만 아니라 농문화도 고려한 이중언어 · 이중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측면, 특히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

행하였지만 언어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임은 당연하다.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에 대해 연구한 최성규(2007b)에서는 농문화와 청인 문화의 차이는 언어적 차이보다 선행된다고 언급하였는데, 문화적 차이는 경험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는 사고와 언어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농학생의 성공적인 이중언어교육을 위해서는 이중문화교육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고석주 (2001). 한국어 조사의 연구: '가'와 '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권순황 (2009). 농인 가족과의 생활경험이 농학생의 수화 사용 및 통합교육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권 1호, 23~37.

김미은·서도원·윤병천 (2007). 농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제반요소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권 3호, 143~164.

김미형 (2011).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전제와 기능 분석. 「담화와 인지」, 18권 3호, 23~64.

김영욱 (2004). 농학생의 이중언어 능통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성공 조건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39권 2호, 31~59.

김용세 (2009). 인공와우 이식 청소년과 건청 청소년의 쓰기에서의 조사 사용 비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응범 (2009).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 지도 효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권 2호, 231~256.

남기심 (1972). 주제어와 주어. 「어문학」, 26권, 128~131.

송혜경·석동일 (2006).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양식 유형에 따른 격조사 사용 비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권 3호, 129~150.

수해붕 (2015). 중국어화자를 위한 주어위치에 쓰인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교육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오아림 (2021).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습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유현경 · 한재영 · 김홍범 · 이정택 · 김성규 · 강현화 · 구본관 · 이병규 · 황화상 · 이진호 (2021).「한국어 표준 문법」. 서울 : 집문당.

이서진 (2014). 이중언어로써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쓰기에 나타난 문법오류특성.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임홍빈 (1998).「국어 문법의 심층」. 파주 : 태학사.

장진석 (2012).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모형 개발 탐색,「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권 1호, 193～212.

채완 (1976). 조사 '는'의 의미.「국어학」, 4권, 93～112.

최성규 (2007a). 우리나라 청각장애아동의 문해능력 신장을 위한 이중언어접근법의 모형개발.「특수교육연구」, 14권 1호, 111～141.

최성규 (2007b).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이중문화와 이중언어 접근법에 대한 Vygotsky의 시각과 공헌.「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권 4호, 633～653.

Hoffmeister, R., de Villiers, P., Engen, E., & Topol, D. (1997). English reading achievement and ASL skills in deaf student. In Elizabeth Hughes, Mary Hughes, & Annabel Greenhill (Eds.),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Moores, D. F., & Martin, D. S. (2006). *Deaf learners: Developments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Padden, C., & Ramsey, C. (2000). American Sign Language and reading ability in deaf children. In Charlene Chamberlain, Jill P. Morford, & Rachel I. Mayberry (Eds.), *Language acquisition by eye,* (pp. 165-189).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中島和子 (2012). 이미숙 외 4인 공역.「이중 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캐나다 · 미국 · 일본의 연구와 실천」서울 : 한글파크.

이효진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 화: (02) 2123-2265
이메일: gywlsdj0704@yonsei.ac.kr

원미진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화: (02) 2123-2268
이메일: mwon@yonsei.ac.kr

논문접수: 2025년 5월 15일
수정완료: 2025년 5월 15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9일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2. No. 1 (2025) pp.057~075

Loanword Processing in Korean English Bilinguals

Lee, Sumi
(University of Arizona)

Lee, Sumi. 2025. Loanword Processing in Korean English Bilinguals.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2*(1), 57-75.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isual word processing of English-derived loanwords in Korean-English bilinguals. While loanwords constitute approximately 5.6% of Korean vocabulary, their cognitive status in bilingual speakers remains underexplored. We examined whether Korean-English bilinguals process loanwords as fully integrated Korean vocabulary or as items requiring cross-linguistic mediation. In a lexical decision task, participants responded to native Korean words, established English-derived loanwords, direct Hangul transcriptions of English words not accepted as loanwords ("foreign words"), and nonwords. Response times revealed that loanwords were processed similarly to native Korean words (M=722.42ms vs. M=717.17m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both categories were processed significantly faster than foreign words (M=786.81ms) and nonwords (M=858.76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stablished loanwords are processed as integral components of the Korean lexical system rather than as foreign elements requiring additional processing resource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loanwords and foreign words is reflected in cognitive processing and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lexical organization in bilingual speakers.

Key Words: Loanwords, Bilingual Lexical Processing, Korean, Visual Word Recognition, Lexical Decision, Psycholinguistics

1. Introduction

Languages constantly evolve through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leading to the adoption of loanwords. In Korean, loanwords are defined as expressions derived from other languages that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Korean language system with societal acceptanc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986). These loanwords, which constitute approximately 5.6% of the Korean vocabulary, with 57.5% originating from English as repor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5), have become an essential part of everyday communication for Korean speakers.

While loanwords are theoretically considered part of the Korean language system, the cognitive processing of these words in bilingual speakers remains underexplored. Previous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phonological aspects of loanword adaptation. Peperkamp et al. (2008) examined how Japanese speakers perceive word-final [n] in loanwords, proposing that non-native sounds undergo perceptual assimilation to the phonetically nearest native sounds. Similarly, Daland et al. (2019) investigated the "illusory vowel effect" in Korean speakers, concluding that loanword phonological perception differs from typical L1 speech perception processes.

Tamaoka and Miyaoka (2003) explored the cognitive processing of Japanese loanwords in katakana, finding that lexical representation of the original English word was only activated when participants had limited exposure to the katakana form. While this research provided valuable insights into loanword processing, it focused primarily on auditory speech perception rather than visual word recognition. This distinction is crucial because visual and auditory processing pathways may engage different cognitive mechanisms when accessing cross-linguistic lexical representations. Furthermore, the majority of loanword research has examined monolingual speakers who rely solely on the adapted form within their native language system. This approach overlooks the unique processing dynamics that may occur in bilingual speakers who possess active knowledge of both the source language (English) and the target language containing the loanwords. Korean-English bilinguals represent a particularly compelling population for investigating these cross-linguistic influences, as they can simultaneously

access both the original English lexical entry and its Korean adaptation during visual word processing. Understanding how these dual representations interact during real-time visual recognition can illuminat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bilingual lexical organization and cross-linguistic activation patterns that remain underexplored in current loanword processing research.

Investigating loanwords through the modality of visual perception is critically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insights into how orthographic representations may trigger different lexical access routes compared to auditory processing. While phonological adaptation of loanwords has been well-documented, the visual recognition of loanwords presents a distinct cognitive challenge, especially in languages like Korean where foreign words undergo significant orthographic transformation when represented in Hangul. Visual processing also allows for more precise measurement of processing times without the confounding factors of speech rate or phonological variations.

The inclusion of bilingual participants offers a unique window into the complex architecture of the bilingual lexicon. For Korean-English bilinguals, loanwords occupy a theoretically ambiguous position—they are integrated into the Korean lexical system but retain etymological connections to English. This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exical organization: Do bilinguals process loanwords through a single Korean lexical route, or do they simultaneously access both Korean and English lexical representations? Does the processing of loanwords require mediation through an interlanguage system that bridges the two languages?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bilinguals may experience "dual activation" of both languages even when operating in a monolingual context (Kroll & Bialystok, 2013), but how this applies specifically to loanwords remains unclear.

Loanwords may differ from regular native words in several important ways. First, they often contain phonological structures that, while adapted to Korean phonotactics, still maintain some "foreign" characteristics. For example, English loanwords frequently introduce consonant clusters that are uncommon in native Korean words, such as /st/ in "스타일" (style) or /sp/ in "스포츠" (sports), which require epenthetic vowels but preserve the cluster relationship. Additionally, loanwords often contain syllable structures that violate typical Korean patterns—while Korean strongly favors CV (consonant-vowel) syllables, loanwords like "컴

퓨터" (computer) introduce CVC patterns with coda consonants like /m/ and /t/ that are less frequent in native vocabulary. Furthermore, many English loanwords preserve vowel sequences that are rare in Korean, such as the /eu-i/ sequence in "뉴스" (news) or /a-i/ in "타이어" (tire), creating phonological patterns that signal their foreign origin even after adaptation. These retained foreign characteristics may create distinct processing signatures that differentiate loanwords from native Korean words during visual recognition. Second, for bilinguals, loanwords may activate cross-linguistic associations with their source language forms. Third, loanwords like "바나나" (/pa.na.na/, "banana") frequently enter the lexicon to represent novel concepts without native Korean equivalents, potentially leading to different semantic network formations. These distinctive properties may result in processing mechanisms that differ from those used for native vocabulary, even when the loanwords have been fully incorporated into everyday Korean usage.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se gaps by investigating how Korean-English bilinguals process English-derived loanwords in Korean orthography (Hangul) compared to native Korean words and direct Hangul transcriptions of English words not accepted as loanwords in Korean. The central question is: Are loanwords truly processed as Korean words by Korean-English bilinguals, or do they constitute a special lexical category that requires access to English language representations or an intermediate interlanguage system? By measuring response times across different conditions, this study will provide insights into the cognitive status of loanwords for bilingual speakers who have proficiency in both the borrowing and source language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English-derived loanwords will elicit longer response times than native Korean words during visual word recognition, despite their apparent integration into the Korean lexical system. Such processing delays would suggest that loanwords engage distinct cognitive mechanisms, potentially involving automatic activation of their original English lexical representations or requiring mediation through cross-linguistic mapping processes that are unnecessary for native word recognition. The results will have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bilingual lexical processing, the status of loanwords in the mental lexicon of bilingual speakers, and theoretical models of cross-linguistic lexical organization.

2. Methods

2.1. Participants

Native Korean speakers (n=17) recruited at Sogang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rticipants demonstrated high English proficiency, achieving level 2 or above on the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English sec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top 11% of test-takers in their cohort year.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 adopt a functional definition of bilingualism that encompasses individuals with high proficiency in a second language acquired through formal education, rather than the traditional definition requiring native-like competence in two languages from early childhood (Grosjean, 2010). This approach aligns with contemporary bilingual research recognizing that functional bilingual processing can occur in individuals with strong L2 proficiency, even when one language is clearly dominant (Kroll & Bialystok, 2013). Given that our participants possess sufficient English knowledge to access both the Korean loanword forms and their English etymological sources during word processing, we refer to them as Korean-English bilinguals within this functional framework.

2.2.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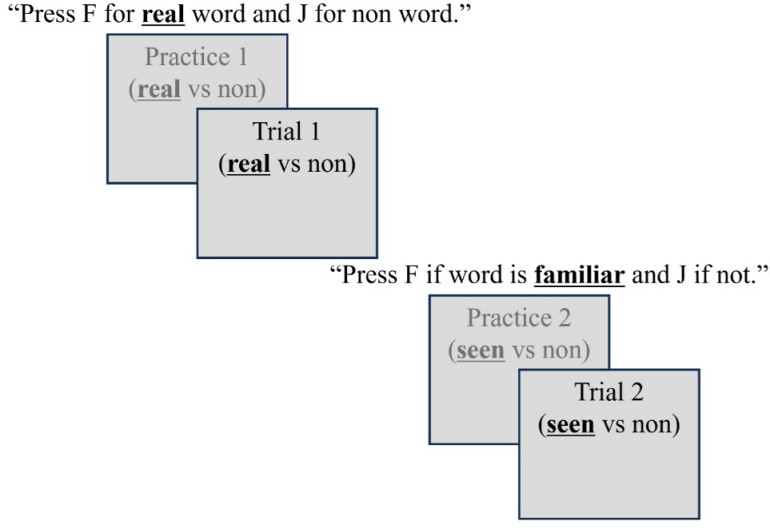
20 words each for the four conditions matched in syllable length and relative frequency in the Korean corpus: (a) direct Hangul transcriptions of English words that are not accepted as loanwords in Korean namely “Foreign words”, (b) frequently used English derived loanwords, (c) Korean native words and (d) phonotactically legal pseudowords in Hangul. Here I choose the term “nonword’ to describe condition (d). The experiment was implemented via FindingFive.

(a) Example of foreign word: continue (kʌn.tʰi.nju 컨티뉴)
(b) Example of loanword: banana (pa.na.na 바나나)
(c) Example of Korean native word: raincloud (mʌk.ku.ɾim 먹구름)
(d) Example of nonword: ‘muto’ (mʌ.tʰo 머토)

The javascript code used for this study is specialized for the FindingFive platform, and is available upon request.

2.3. Experiment procedure

In Hangul, subjects are shown a single word from one of the four conditions. Subjects are asked to respond to two prompts in the following order:



[Figure 1] Order of experimental procedures

Note.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practice sessions for 2 prompts before the actual trials. The first set (practice 1, actual trial 1) was prompting to respond if the word was real and the second set (practice 2, actual trial 2) was prompting to respond if the word was familiar.

3. Results

Analysis of participant responses confirmed the hypothesis that processing differs across word categories, particularly between foreign words and established Korean vocabulary.

3.1. Familiarity judgement

To validate stimulus categorization, participants rated their familiarity with each word. As shown in Table 1, participants demonstrated high familiarity with foreign words, native Korean words, and loanwords (approximately 99% for each category), while recognizing only 9.71% of nonwords. During practice sessions, participants correctly identified 100% of the foreign, Korean, and loanword stimuli, confirming the validity of our stimulus categorization.

[Table 1] A summary of participants' responses to question asking for familiarity

	Foreign	Korean	Loan	Non
Practice	34/34 100%	34/34 100%	34/34 100%	6/34 17.65%
Actual	338/340 99.11%	339/340 99.71%	336/340 98.82%	33/340 9.71%

Note. The numbers represent the instances participants responded the word is familiar. For example, 34/34 means that participants replied 34 words were similar out of 34 stimuli in that condition. The percentage is the calculated ratio of how many words were viewed as familiar.

[Table 2] A summary of participants' response times to question asking for familiarity

Foreign	Korean	Loan	Non
693.21 (297.12)	677.4 (291.42)	696.87 (295.74)	773.69 (271.27)

Note. The numbers represent the average response times participants responded the word is familiar in milliseconds (ms). The number in the parentheses is the standard deviation. Outliers were trimmed for 3 SDs from the top and the bottom.

3.2. Lexical decision task

The primary research question was addressed through a Lexical Decision Task (LDT) across all four word categories. Table 3 summarizes participant accuracy in identifying real words. During the experimental session, participants achieved

100% accuracy for foreign words, Korean words, and loanwords. For nonwords, participants incorrectly classified only 13 out of 340 stimuli (3.82%) as real words, demonstrating strong discrimination ability.

[Table 3] A summary of participants' responses to question asking for whether presented stimulus is a real word

	Foreign	Korean	Loan	Non
Practice	32/34 94.12%	34/34 100%	34/34 100%	2/34 5.88%
Actual	340/340 100%	340/340 100%	340/340 100%	13/340 3.82%

Note. The numbers represent the instances participants responded the word is real. For example, 34/34 means that participants replied 34 words were real out of 34 stimuli in that condition. The percentage is the calculated ratio of how many words were viewed as real.

Response time (RT) data, presented in Table 4, revealed a clear processing hierarchy. Native Korean words were processed most quickly (M = 717.17 ms, SD = 264.63), followed closely by loanwords (M = 722.42 ms, SD = 250.98). Foreign words required longer processing times (M = 786.81 ms, SD = 297.25), while nonwords demanded the longest processing time (M = 858.76 ms, SD = 302.63). This pattern largely confirms our initial hypothesis regarding the cognitive status of different word categories.

[Table 4] A summary of participants' response times to question asking for whether presented stimulus is a real word

Foreign	Korean	Loan	Non
786.81 (297.25)	717.17 (264.63)	722.42 (250.98)	858.76 (302.63)

Note. The numbers represent the average response times participants responded the word is real in milliseconds (ms). The number in the parentheses is the standard deviation. Outliers were trimmed for 3 SDs from the top and the bottom.

3.3. Statistical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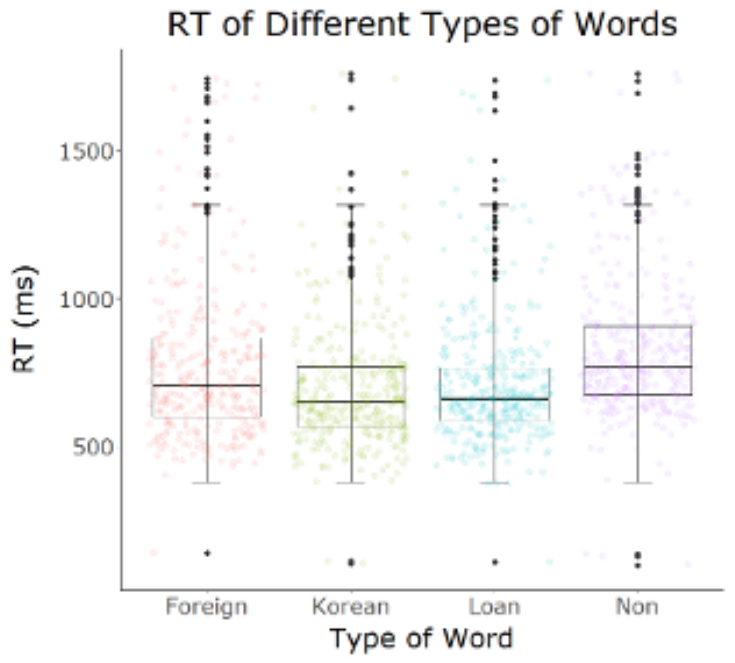
To ensure robust analysis, outliers were systematically removed from the dataset. Response times exceeding 7000 milliseconds were eliminated, as were values beyond 3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mean. This outlier removal process resulted in 156 datapoints being excluded, leaving 1204 datapoints for final analysis.

Pairwise t-tests were conducted between all condition pairs (Table 5).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for all comparisons except between Korean words and loanwords. This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n words and loanwords provides compelling evidence that loanwords are not only prescriptively categorized as part of the Korean language system but also processed similarly to native Korean words at the cognitive level by Korean-English bilinguals.

[Table 5] A summary of all possible pairwise t-test results for different types of words

Foreign * Korean	t(631.15)= 3.92, p<0.001***
Foreign * Loan	t(631.65)=3.27, p=0.001**
Foreign * Non	t(646.69)=-2.85, p=0.005**
Korean * Loan	t(663.94)=-0.72, p=0.47
Korean * Non	t(633.75)=-7.20, p<0.001***
Loan * Non	t(633.79)=-6.52, p<0.001***

Note. Outliers were trimmed for 3 SDs from the top and the bottom.



[Figure 2] Boxplot of RT distribution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words

Note. Y-axis represents the response time in milliseconds (m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type of word in the order of "foreign word" in red, "Korean word" in green, "loanword" in blue, and "nonword" in purple. For the data used for this boxplot, outliers were trimmed for 3 SDs from the top and the bottom.

The response time distributions across all conditions are visualized in Figure 2, demonstrating the clear processing advantage for native Korean words and loanwords compared to foreign words and nonwords. This pattern suggests that loanwords, despite their foreign etymology, have been fully integrated into the Korean mental lexicon of our bilingual participants.

3.4. Different modes of responses

Despite the experimenter's request to participate in this experiment with a laptop and Google Chrome browser which is ideal for the FindingFive platform, some participants used the smartphone in which the response times differed presumably due to the device processing time dif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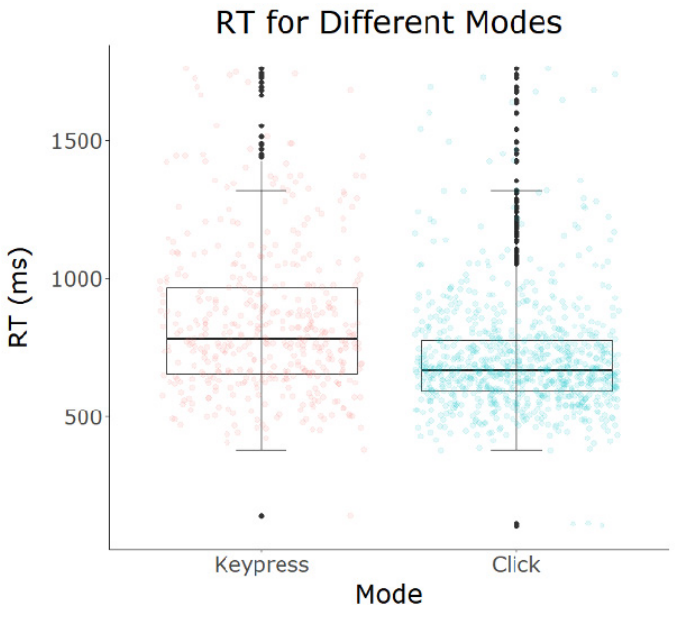
[Figure 3] An example of the screen displayed to the participants via FindingFive, using a laptop device with Google Chrome browser

Figure 3 and Figure 4 show the differences between two modes of experiment participation. Figure 3 is an example of the screen displayed to the participants using a laptop device, and Figure 4 is an example of the screen displayed to the participants using a smartphone device with the Google Chrome browser mobile application.



[Figure 4] An example of the screen displayed to the participants via FindingFive, using a smartphone device with the Google Chrome browser mobile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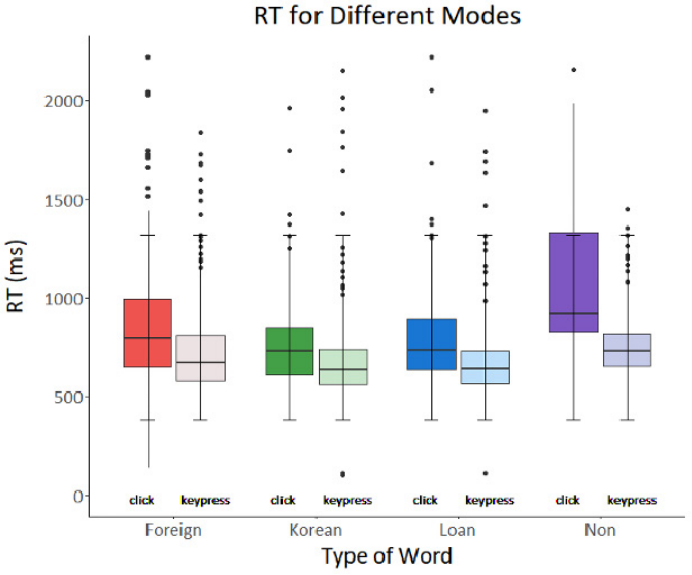
Figure 5 shows the distribution of RTs according to different mode of response for only accurate responses. Keypress is when a participant responded with a keyboard which is the ideal experimental setting and click is when a participant responded by touching their screens or using a mouse. A post-hoc survey confirmed that 100% of the clicked responses were from touching their screens using a smartphone device.



[Figure 5] Boxplot of RT distribution according to different mode of response for only accurate responses

Note. Y-axis represents the response time in milliseconds (m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mode of response in the order of "Keypress (keyboard)" in red, and "Click (touch screen or mouse)" in blue. For the data used for this boxplot, outliers were trimmed for 3 SDs from the top and the bottom.

In fact, an overall ANOVA analysis confirmed that there was an expected significant effect for type $F(3,1316)= 24.45$, $p<0.001$***, but also for mode of response $F(1,1316)=115.89$, $p<001$***. The interaction between type of word and mode of respon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well ($F(3, 1316) = 13.51$, $p < .001$***). Figure 6 below shows the distribution of RTs for different modes of responses (Keypress, Click) to 4 types of words (foreign, Korean, loan, non). Overall, keypressed responses showed shorter response times compared to clicked responses, but the trend for Korean and loanword being the lowest in RTs and foreign words being higher was consistent across modalities.



[Figure 6] Boxplot of RT distribution according to different mode of response for only accurate responses

Note. Y-axis represents the response time in milliseconds (ms) and the X-axis represents the mode of response in the order “foreign word” in red, “Korean word” in green, “loanword” in blue, and “nonword” in purple. The darker colors are for “Click” and the lighter colors represent “Keypress” response modes. For the data used for this boxplot, outliers were trimmed for 3 SDs from the top and the bottom.

4.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ign with our initial hypothesi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English-derived loanwords by Korean-English bilingual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Korean loanwords are processed differently from direct Hangul transcriptions of English words (the foreign word condition), despite controlling for familiarity across conditions. Most notably, the response time data reveal that loanwords are processed similarly to native Korean words, wi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nditions.

This pattern suggests that loanwords are not only prescriptively categorized as part of the Korean language syste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986) but are also processed in ways that are processing-wise equivalent to native Korean vocabulary. However, we acknowledge that our design specifically targets the bilingual advantage in cross-linguistic lexical access that would be absent in Korean monolinguals. While high-frequency loanwords like 바나나 may indeed feel native-like to both populations, the critical difference lies in bilinguals' ability to automatically access the English etymological form "banana" during Korean loanword processing, creating measurable processing costs even for highly familiar items that would not occur in Korean monolinguals who lack English lexical representations. This finding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lexical integration in the bilingual mental lexicon, suggesting that once foreign-derived words become established as loanwords, they achieve a processing status comparable to native vocabulary.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cessing between foreign words (direct transcriptions) and loanwords is particularly informative. Both word types contain similar phonological elements when written in Hangul, yet participants demonstrated distinct processing patterns. The decision to present English words in Hangul was made to isolate lexical processing from script-switching effects, as presenting English words in Latin script would introduce orthographic processing differences that could overshadow lexical access patterns, following established cross-linguistic research showing that script effects and lexical effects can be dissociated (Hoshino & Kroll, 2008). This aligns with Tamaoka and Miyaoka's (2003) finding that lexical representations of loanwords can be activated independently of their source language origins once they become established in the borrowing language.

Unlike the findings of Daland et al. (2019) regarding phonological perception, where loanword perception was found to differ from typical L1 speech percep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at the level of visual word recognition, loanwords appear to be fully integrated into the L1 lexical processing mechanisms. The Hangul script may serve as a language-specific cue that initially directs processing toward Korean lexical representations, but phonological and semantic overlap with English may subsequently activate English entries, creating competition or facilitation effect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lexical frequency, semantic

transparency, and degree of phonological adaptation.

This orthography-to-phonology-to-semantics processing cascade could explain why loanwords show intermediate processing costs between native and foreign words, as they benefit from orthographic familiarity while incurring cross-linguistic activation costs. This difference between auditory and visual modalities of loanword processing merits further investigation.

Several methodological limitations should be considered when interpreting these results. While the number of stimuli per condition (N=20) falls within acceptable parameters for a behavioral study, the nonword condition contained fewer stimuli than would be ideal for balanced comparison. Additionally, as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online, response mode could not be strictly controlled, potentially introducing variability in response times. High-frequency loanwords may have achieved sufficient entrenchment in the Korean lexical system to pattern similarly to native words, while low-frequency loanwords may retain stronger activation of English representations. This frequency-dependent processing would support models of gradual lexical integration where repeated exposure reduces cross-linguistic activation costs, and future research should systematically vary loanword frequency to test this integration hypothesis.

Future research should address these limitations by replicating the study in a controlled laboratory setting with balanced stimulus sets across all conditions. Furthermore, extending this research to older Korean speakers would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potential generational differences in loanword processing. As suggested by Peperkamp et al. (2008), different age groups may exhibit varying degrees of perceptual assimilation for non-native language elements, which could affect loanword processing. Future studies could include both Hangul and Latin script conditions to separate orthographic and lexical effects, and incorporate lower-frequency loanwords to examine how degree of lexical entrenchment affects cross-linguistic processing pattern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for Korean-English bilinguals, established loanwords are processed as integral components of the Korean lexical system rather than as foreign elements requiring additional processing resources or cross-linguistic mediation.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lexical organization in bilingual speakers and how borrowed vocabulary becomes

nativized not only in linguistic description but also in cognitive processing. The distinct processing patterns observed for foreign words versus loanwords underscore the psycholinguistic reality of th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these categories (Kroll & Bialystok, 2013), even when both are represented in the orthography of the borrowing language.

References

Berger, A., & Kiefer, M. (2021). Comparison of different response time outlier exclusion methods: A simulation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675558.

Boddaert, G., Cornut, C., & Casalis, S. (2021). Integration of newly learned L2 words into the mental lexicon is modulated by vocabulary learning method. *ActaPsychologica, 212,* 103220.

Daland, R., Oh, M., & Davidson, L. (2019). On the relation between speech perception and loanword adaptation: Cross-linguistic perception of Korean-illicit word-medial cluster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37,* 825-868.

Daland, R., Oh, M., & Kim, S. (2015). When in doubt, read the instructions: Orthographic effects in loanword adaptation. *Lingua, 159*, 70-92.

De Jong, K., & Cho, M. H. (2012). Loanword phonology and perceptual mapping: Comparing two corpora of Korean contact with English. *Language, 88*(2), 341-368.

Dijkstra, T., & Van Heuven, W. J. (2002). The architecture of the bilingual word recognition system: From identification to decision. *Bilingualism, 5*(3), 175-197.

Duyck, W., Van Assche, E., Drieghe, D., & Hartsuiker, R. J. (2007). Visual word recognition by bilinguals in a sentence context: Evidence for nonselective lexical acces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3*(4), 663.

Grosjean, F. (2010). Bilingual: Life and re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oshino, N., & Kroll, J. F. (2008). Cognate effects in picture naming: Does cross-language activation survive a change of script? *Cognition, 106*(1), 501-511.

Jin, Y. S. (1990). Effects of concreteness on cross-language priming in lexical deci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0*, 1139-1154.

Kim, S. Y., Wang, M., & Ko, I. Y. (2011). The processing of derivational morphology in Korean–English bilingual readers.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4*(4), 473-488.

Kroll, J. F., & Bialystok, E. (2013).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of bilingualism for language processing and cogni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25*(5), 497-514.

Lee, C. H., Nam, K., & Katz, L. (2005). Nonselective access of spelling–sound knowledge for Korean-English bilingual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0*(6), 407-415.

Lim, J. H., & Ahn, H. D. (2024). Trilingual word recognition: Phonological priming effects in trilingual with different-script languag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921-933.

Mergen, F., & Kuruoglu, G. (2021). Lateralization of lexical processing in monolinguals and bilingual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25*(6), 1497-1509.

Mulík, S., & Carrasco-Ortiz, H. (2023). Different effects of L1 and L2 phonology on L3 lexical learning: An ERP study. *Second Language Research, 39*(2), 493-518.

Nakayama, M., Sears, C. R., Hino, Y., & Lupker, S. J. (2012). Cross-script phonological priming for Japanese-English bilinguals: Evidence for integrated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7*(10), 1563-1583.

Nam, J. Y., & Southard, B. (1994). Orthographic representation and resyllabification of English loan words in Korean. *Language and Speech, 37*(3), 259-281.

Peperkamp, S., Vendelin, I., & Nakamura, K. (2008). On the perceptual origin of loanword adaptations: Experimental evidence from Japanese. *Phonology, 25*(1), 129-164.

Tamaoka, K., & Miyaoka, Y. (2003). The cognitive processing of Japanese loanwords

in katakana.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45*(2), 69-79.

Tyson, R. (1993). English loanwords in Korean: Patterns of borrowing and semantic change. *Journa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eaching, 1*, 29-36.

Zhang, N., Wu, Z., & Wang, M. (2025). Cross-language phonological activation in bilingual visual word recognition: A meta-analysi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31.

Lee, Sumi
1200 E University Blvd, Tucson, Arizona, United States
Researcher,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Arizona
Email: sumilee@arizona.edu

Received on May 16, 202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 17, 2025
Accepted on Jun 18, 2025

언어융합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어융합연구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제3조(구성 절차)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1. 편집위원은 연구 실적이 지난 5년 동안 1년 평균 100% 이상으로,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학술 활동이 활발한 학자로서 세부 전공 영역별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역할)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외의 도서에 대한 기획 및 발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3.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특집 및 기획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매년 2회 학술지 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외의 도서를 기획 및 발간하는 때에도 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인터넷 통신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

제8조(특집 및 기획주제 선정)

1. 편집위원회는 정기 편집위원회의에서 다음 호의 특집 및 기획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특집 및 기획 주제의 필진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로 구성하되, 연구 업적 및 학계 기여도를 성실히 참고한다.
3. 특집 및 기획 주제는 전체 호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는 특집 및 기획 주제와 관련된 학술대회 또는 기획주제 발표회 개최를 연구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특집 및 기획 주제에 따라 제출된 논문은『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논문 심사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주관 아래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투고 내용

1)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는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인문사회 관련 학문의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게재 대상으로 한다.
2) 연구 논문 외에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뜻에서 연구 동향, 서평 등을 수록할 수 있다.
3) 전문적인 학술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2. 투고 자격

1) 투고 자격은 인문사회 분야 석사과정 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동일 저자(공저자 포함)는 3회 연속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 발간 일정

1)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는 1년에 2번 발행한다.
2) 발간일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① 상반기 발간일은 6월 30일이며, 원고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② 하반기 발간일은 12월 31일이며, 원고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4. 논문의 작성 및 제출

1) 논문은 언어융합연구소 온라인 시스템(lcri@chosun.ac.kr)을 이용해 투고한다.
2) 국내 투고 논문은 '흔글'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한다. 다만, '흔글' 프로그램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에 체류 중일 때, 영어로 작성하는 논문의 경우 MS Word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투고자는 투고 시에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첨부한다.
4)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 등을 같이 제출한다.
5) 투고 논문의 작성은 다음에 제시하는 논문 작성 기준을 따르며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논문작성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5. 논문 작성 기준

(아래의 논문 작성 기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저널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형식이나 참고문헌 형식으로 작성된 원고는 출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에 실리는 글의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 논문은 A4 용지 단면으로 15매 내외
   ② 논문 초록은 170 내지 18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2)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 제목 (Paper Title)
   ② 저자: 공동연구자도 모두 소속을 명기하여 표기한다.
   ③ 저자의 소속은 저자명 바로 아래에 '(**대학교/** University)'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④ 초록: 논문 초록은 170~180 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제목과 저자 정보, 연구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결론과 성과 등을 쓴다.
   ⑤ 주제어: 초록에 이어서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를 5-6개 쓴다.

⑥ 차례: 1., 1), (1)의 형식으로, 첫 단계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⑦ 본문: 장, 절은 1., 1), (1)로 적고,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연도, 쪽 번호만 밝힌다. 예문의 작은 번호는 a. b. c. 등으로 표기하며, 본문에서 예문을 인용할 때에는 (1a), (1b), (1c) 등과 같이 표기한다.

⑧ 참고 문헌: 인용된 문헌을 적되, 논문은 학술지 수록 쪽수를 표기한다.

3) 참고문헌 표기 원칙

① 참고문헌의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② 참고문헌은 본문과 구분하여 별지에 작성한다.

③ 문헌 배열 순서는 한글문헌, 동양어 문헌 (일본어, 중국어),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④ 한국어 문헌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임.
예) 홍길동 (1990).「한국언론」. 서울 : 새나라.

b.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 넣음.
예) 홍길동, 김막동 (편). (1995).「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 : 새나라. (공편저일 때)

c. 논문의 경우는 게재지에 수록된 쪽수를 표시함.
예) 홍길동 (1991). 한국언론의 새로운 지평 연구. 「한국언론」, 35권 1호, 23~54.

⑤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저널의 논문 (Journal article)
저자의 성을 먼저 쓰고 쉼표를 붙인 후 이름을 약자로 쓴다. 한 저자 이름의 약자에 마침표와 쉼표를 찍은 후에 다음 저자의 성을 쓴다. 단, 저자가 두 명일 경우, 첫 번째 저자 이름의 약자에 마침표만 붙이고 "&" 추가한 뒤 두 번째 저자의 성을 쓰고 이름을 약자로 쓴다. 출판연도는 괄호에 넣는다. 논문은 주제목과 부제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며 보통체로 한다. 저널 이름은 영문인 경우 주요 단어의 첫 자를 모두 대문자로 하고 이탤릭체로 한다. volume 번호도 이탤릭체로 하나, issue 번호는 괄호 속에 보통체로 한다. 마지막으로 쪽수를 표시한다.

예1) Yang, J. & Fischer, S. D. (2002.) Expressing negation in Chinese Sign Language. *Sign Language & Linguistics, 5*(2), 167-202.

예2) Kim, J.-B., Sells, P., & Yang, J. (2007). Parsing two types of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 A constructional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11*, 25-37.

b. 학위 논문

학위명을 이탤릭으로 하고,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MA Thesis', 박사 학위 논문인 경우 'Ph.D. Dissertation'으로 표기한 후, 마침표를 하고 학위 수여 대학을 표기한다.

예1) Lee, J. (2021). *Nominative case assignment by phase: A predicate-based approach.*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예2) Youn, B. C. (2003). *The study on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non-manual signals in Korean Sign Language.*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c. 도서

(1) 도서 및 전자책 (Book & eBook)

저자 표기법은 저널 논문의 경우와 같다. 책 제목은 이탤릭으로 하되, 저널 논문 제목처럼 주 제목과 부제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판수는 보통체로 표기하며, 예를 들어 "(3rd edition.)" 형태로 작성한다. 도서의 출판지 정보는 도시 이름과 출판사 이름을 명시한다.

예) Hyland, K. (2019). *Metadiscourse: Exploring interaction in writing* (2nd edition.). London: Bloomsbury Academic.

(2)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 (An article or chapter in an edited book)

편집자의 성명은 저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뒤에 쓰며, 약자가 아닌 Full name을 쓴다. 편집된 책 제목이 아닌 해당 논문이나 장의 제목을 이탤릭으로 하고 ',' 붙이고 페이지 수를 기입한다 (pp.**-**). 도서의 출판지 정보는 도시 이름과 출판사 이름을 명시한다.

예) Brdar-Szabó, R. & Brdar, M. (2022). Metonymy in multimodal discourse, or: How metonymies get piggybacked across modalities by other metonymies and metaphors. In Alexandra

Bagasheva, Bozhil Hristov, & Nelly Tincheva (Eds.), *Figurativity and human ecology,* (pp.209-249). Amsterdam: John Benjamins.

(3) 다권본 도서(Multi-Volume Works)

권(volume)을 명시할 경우, 'volume'은 제외하고 숫자만 책 제목 뒤에 표시하며, 이탤릭체로 한다.

예) Hopper, J.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Elizabeth Traugott &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pp.17-35). Amsterdam: John Benjamins.

6. 논문의 발행 및 저작권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확정된 논문을 학술지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에 게재하여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에 양도하여야 한다.
3)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투고논문과 함께 저작권 활용 동의서(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서약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등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언어융합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공개,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논문 공개 등 논문의 공개 및 출판, 판매 등의 권한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일체는 언어융합연구소에 귀속된다.

7. 반환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언어융합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어융합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제반 활동의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 및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의무)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 및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에 관련된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4조(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1.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윤리 위반 사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연구 윤리 위반으로 본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의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와 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와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제9조(심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심사 결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서류로 보관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1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후속 조치) 소장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소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소장은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구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
제2권 제1호, 2025년 6월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학술지, 연 2회 간행

CONTENTS

오수빈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여행 은유와 시대적 함의
이선혜	수어에서의 문법화 연구 동향 분석: 계량서지학적 접근
이효진 · 원미진	농학생 대상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 교육 연구: 이중언어 · 이중문화 접근법을 기반으로
Lee, Sumi	Loanword Processing in Korean English Bilinguals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ume 2, Numer 1, June 2025

Language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ISSN 3058-2644